



국립대학 육성사업 홍보 아카이브

홍보백서

Archive: Korea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

국립대학 육성사업 홍보 아카이브

홍보백서

Archive: Korea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CONTENTS

•

국립대학 육성사업 홍보 아카이브
홍보백서

Korea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PART 1.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 홍보 플랫폼 소개

- 08 공식 홈페이지
- 08 공식 인스타그램
- 09 공식 유튜브 채널

PART 2.

국립대학 육성사업 공식 홍보영상

- 12 국립대학 육성사업 공식 홍보영상
<우리 지역 혁신의 길, 국립대학>

INTRO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

- 04 기관소개

PART 3.

국립대학 육성사업 특집기획기사

- 16 2019년도 중앙일보 특집기획기사
<부활하는 국립대>
- 19 2020년도 동아일보 특집기획기사
<국립대, 혁신과 상생의 미래를 연다>
- 23 2021년도 동아일보 특집기획기사
<국립대, 다함께 미래로>
- 28 2022년도 중앙일보 특집기획기사
<지방대학시대를 이끄는 국립대학>
- 31 2022년도 동아일보 특집기획기사
- 32 2022년도 매일경제 특집기획기사
- 33 2023년도 중앙일보 특집기획기사
<국립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다>
- 37 2023년도 중앙일보 온라인기사

PART 4.

국립대학 육성사업 방송 콘텐츠

- 42 EBS 특집 다큐멘터리
<국립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 42 EBS 국립대학 캠페인
<일터스텔라>
- 43 EBS 특집 다큐멘터리
<국립대학>
- 43 웹예능 시리즈
<컴플렉스>
- 44 JTBC 차이나는 클라스 국립대학편
<대학을 바꾸면 나라가 바뀐다!>

PART 5.

국립대학 육성사업 영상콘텐츠 공모전

- 48 제1~3회 영상콘텐츠 공모전 대상 수상작
- 49 제4회 영상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소개

PART 6.

국립대학 육성사업 대학생 홍보대사

- 52 2020년도 KDD
- 53 2021년도 KDD
- 54 2022년도 KDD
- 56 2023년도 KDD
- 57 2024년도 KDD

PART 7.

국립대학 육성사업 영상 콘텐츠

- 60 K대딩
- 62 노잼맨
- 62 차린건 나라지만
- 63 스케치 코미디
- 64 현장취재
- 66 인터뷰
- 68 국립대X국립대
- 69 국립대학 캠퍼스 투어
- 70 추천 영상
- 71 역대 최다 조회수

PART 8.

국립대학 육성사업 카드뉴스

- 74 사업소개
- 82 모집홍보
- 88 참여후기 & 인터뷰

기관소개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를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립대학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해 국립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는 전국 국립대학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참여대학 협의기관입니다.

국립대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해 국립대학 간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사업 성과를 공유하며 새로운 교육 정책을 발굴하는 협업의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KOREA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 전략 개발 및 공유

국립대학이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아이디어를 함께 논의하고, 그 방안을 서로 공유합니다.



사업 성과 및 필요성 홍보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필요성 강조 및 사업 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을 추진합니다.



대학 간 교류 및 협력 강화

국립대학 간 시너지를 위한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합니다.



새로운 교육정책 제안

고등교육의 발전과 혁신에 관한 정책연구를 진행합니다.



공동 제안 사항 수렴 및 대응

고등교육과 관련된 정부차원의 문제나 개선해야 할 부분을 수렴하여 제안합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 홍보 플랫폼 소개

PART

1

- 1 공식 홈페이지
- 2 공식 인스타그램
- 3 공식 유튜브 채널

국립대학 육성사업 홍보 플랫폼 소개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는 여러분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전국 국립대학의 다양한 활동과 사업 성과를 알리기 위해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국립대학 소식을 신속하게 알 수 있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 채널을 소개합니다.

Q. 어떤 정보들을 볼 수 있나요?

사업 및 참여대학 소개, 사업 관련 행사 안내, 사업 운영 관련 자료 등을 볼 수 있습니다.

Q. 발전협의회 공식 홈페이지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 계획부터 주요 성과와 대학별 연간 사업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참고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공식 홈페이지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사업소개 및 성과, 행사 자료 등 사업과 관련한 정보와 다양한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3 공식 유튜브 채널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국립대학과 관련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Q.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 유튜브 채널에는 어떤 콘텐츠가 있나요?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솔직한 후기와 사업 현장을 담은 콘텐츠가 있습니다. 국립대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있는 국립대학에 대해 담은 영상 보러주세요.



Q. 혹시 추천하는 콘텐츠가 있을까요?

재생목록 중 '국립대학 Series'를 보시면 국립대학을 주제로 재밌게 만들어져있는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어요. 또한,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주제로 제작한 방송 콘텐츠 모음도 볼 수 있습니다.



2 공식 인스타그램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는 국립대학 활동을 카드뉴스 등의 이미지로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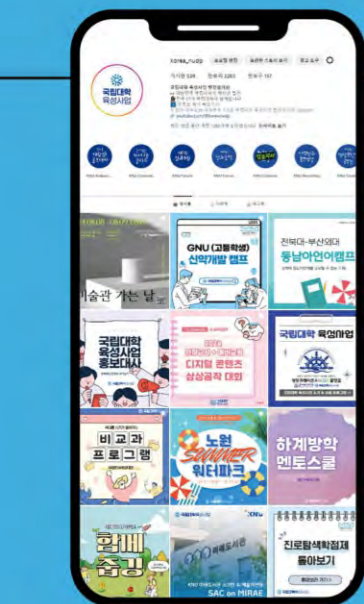


Q. 주로 어떤 콘텐츠를 볼 수 있나요?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시면, 현재 전국 국립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민도 참여할 수 있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소식을 만나보세요.

Q.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면 좋은 점이 있나요?

전국 국립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PART

2

국립대학 육성사업 공식 홍보영상



우리 지역 혁신의 길, 국립대학



우리 지역 혁신을 위한 방법은 국립대학이 열어갑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 혁신은 국립대학으로부터 통한다’라는 메시지를 ‘길’이라는 단어로 담아 국립대학 육성사업 공식 홍보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국립대학의 역할과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제작된 국립대학 육성사업 공식 홍보영상은 2023년 5월 5일부터 6월 4일까지 전국 메가박스 영화상영관 스크린광고로 홍보되었습니다.(총 92개 지점, 622개 스크린) 또한, 강남케이블 방송 딜라이브 채널 광고로 편성되어 송출되었습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공식 홍보영상



국립대학 육성사업 특집기획기사

PART

3

- 1 2019년도 중앙일보 특집기획기사 <부활하는 국립대>
- 2 2020년도 동아일보 특집기획기사 <국립대, 혁신과 상생의 미래를 연다>
- 3 2021년도 동아일보 특집기획기사 <국립대, 다함께 미래로>
- 4 2022년도 중앙일보 특집기획기사 <지방대학시대를 이끄는 국립대학>
- 5 2022년도 동아일보 특집기획기사
- 6 2022년도 매일경제 특집기획기사
- 7 2023년도 중앙일보 특집기획기사 <국립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다>
- 8 2023년도 중앙일보 온라인기사

부활하는 국립대

2019년도

중앙일보 특집기획기사

보도기간

2019. 12. 30. ~ 2020. 4. 21.

1회차

창업서 문화까지
국립대가 된다



강원도 춘천에서 군 복무를 마친 전정표(21)씨는 전역 한 달만인 지난 23일 '병장'에서 '사장'으로 '계급장'을 바꿔 달았다. 군 장비의 외출·외박 관리를 돕는 스마트폰 앱(App)을 만들어 스타트업 창업가로 변신한 것이다.

전씨는 "군 생활 중 휴가·외박을 나가면 정해진 시간마다 보고해야 하는데, 앱으로 쉽게 관리할 수 있다"고 했다. 군 복무 중 시제품을 개발해 지난 8월부터 종대원 50여 명에게 테스트도 진행했고 내년 3월 출시 예정이다.

전씨의 창업은 강원대가 지난 5월부터 육군 2군단 강원도와 진행하는 '열린 군대 창업 프로그램' 덕분이다. 청년층 유출로 고민하는 강원도에 '젊은 피'를 수혈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창업 사기도 높이는 '군·관·학' 프로젝트다.

1기 교육생 70명이 6개월간 전투체육시간과 주말을 활용해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앱 개발, 드론, 3D프린팅을 배웠다. 창업 자금도 지원했다. 2024년까지 군부대 유류부지에 실험실 등을 갖춘 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수도권 집중화로 침체 위기에 처했던 국립대가 변신



을 피하고 있다. 캠퍼스 담을 넘어 지역사회와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 성장 동력으로 거듭나고 있다.

변화의 중심엔 전국 39개 국립대가 함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국립대학육성사업발전협의회'가 있다. 25일 김규용 회장(충남대 기획처장)은 "과거 통폐합 등 구조개혁 위주 정책 탓에 약화된 국립대 고유의 역할과 기능, 지역사회에 대한 책무성을 되찾기 위해 공동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국립대학 육성지원사업이 마중물 역할을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800억원, 올해 1504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1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 국립대는 지역 특성과 대학 역량에 특화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 안성 한경대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 창업가를 위한 '창농팜'을 운영한다. 교수 강의 전문가 컨설팅에 더해 실습용 비닐하우스, 초기 자금도 제공한다.

15년간 화학산업에서 일하다 딸기농장을 창업한 여찬혁(43)씨는 "귀농 결심 전엔 '농일못(농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 불과했지만 '지름길'을 알려주는 창농팜 덕에 도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성대는 진주 등 서부 경남권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는 '경남학' 육성을 위해 진주김우·남명학파와 진주 출신 시인 허수경, 아동문학가 최계락 등 핵심 주제 10가지를 선정했다. 임규홍 인문대학장은 "경남의 정체성을 찾고 지킨다는 책임감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10곳의 국립 교육대는 교육 격차 해소에 노력한다. 광주교대는 지난 9월부터 사회배려계층 초등생 54명을 대상으로 로봇 코딩 등 과학실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보조교사로 참여한 이 학교 3학년 이세영씨는 "처음엔 소극적이던 아이들이 또래와는 다른 경험을 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전했다.

학교 공간 장바·노하우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국립대도 늘고 있다. 안동대는 3D 프린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이노메이커랩'을 개방했다. 지난 9월부터 진행된 전로체험 과정엔 자유학기제를 맞은 중학생 336명이 참여했다.

김규용 회장은 "국립대는 '지역 기반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지개를 켜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 경제 혁신을 이끌어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회차

산골학교에 인형극,
장애인에 예술교육...
국립대가 간다



강원도 홍천군의 반곡초등학교는 전교생이 33명 뿐인 산골학교다. 지난해 8월 이 학교에 '대학생 선생님'들이 찾아왔다. 춘천교대생 10명이 3박4일간 머물며 아이들과 함께 인형극을 준비했다. 국어교육과 4학년 임수민(22)씨와 6명의 학생들은 '오리와 병아리의 우정여행'을 무대에 올렸다. 오리가 이시간 친구 병아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다양성의 중요함을 배우는 줄거리다. 반응은 뜨거웠다. 반곡초 박지연 교사는 "문화 혜택을 누릴 기회가 드문 학생들이 직접 인형을 제작하고 줄거리를 정해 공연하면서 자신감을 얻었다"며 "주민도 초대된 마지막 날은 마을 축제 같았다"고 전했다. 인형극 캠프를 총괄한 이상신 교수는 "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작은 학교'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발하고 교사를 양성하는 게 국립교대의 책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춘천교대 인형극 캠프는 9일 대구에서 열린 제2회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포럼에서 발표된 우수 사례 중 하나다. 교육부는 국립대의 공공성과 경

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1500억원 규모의 육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39개 국립대가 참여한 국립대학육성사업발전협의회는 "고등교육 기회 보장"을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이날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포럼에서도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고 지역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려는 우수 사례가 공유됐다. 전국 10곳의 교육대학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예비교사인 재학생의 재능 기부를 장려하고 있다. 진주교대는 재학생 봉사 활동으로 경남도교육청의 수확체험 캠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진주남가람수확축제에선 '스트링 아트(String Art)로 살아난 논개의 노리개'란 체험 공간을 운영했다. 끈 공예의 수확 원리로 학생의 호기심을 높이고 예비교사에게 교수법을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경인교대는 학교 공간을 활용해 미술과 삶을 연결하는 전시와 교육을 제공한다. 지난해 5·6월 인천조각가협회 작가들의 작품 25점을 전시하고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터치 투어' 등을 운영했다.

전주교대는 지난해 10·11월 국립무형유산원과 함께 전통춤 공예 등 무형문화재 이수자에게 청소년과 성인을 가르칠 때 필요한 교수법과 멀티미디어 활용법을 가르쳤다. 최병연 전주교대 기획실장은 "무형유산 전수자의 교육 역량을 높여 학생·시민이 전통예술에 한층 다가갈 수 있게 돕는 한편, 전수자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려 했다"고 말했다.

특성화 역량을 활용하는 국립대도 늘고 있다. 서울과학기술대는 지난해 8월에 이어 이달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저소득층 자녀 등을 위한 체험수업을 진행 중이다. 태양광 거북 로봇, 전기 회로 등대를 만들어 과학 원리를 배우고, 실크스크린으로 에코백을 만드는 미술 활동을 한다.

부산대는 발달장애인에게 예술교육을 제공하는 2년제 비학위 과정인 'PNU 꿈나래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강영심 평생교육원장은 "고립된 생활을 하기 쉬운 발달장애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직업인으로 키우기 위해 연구·협창·공예·미술 등 예술활동을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손재주가 좋은 심승보(28)씨는 지난해 장애인미술대전에서 공예부문 특선을 수상했고, 성악에 소질 있는 김지현(24)씨는 평창장애인음악회 무대에 섰다. 경기도 평택의 복지특성대학인 한국복지대는 지역 청소년과 지자체 공무원에게 '유니버설디자인' 체험을 제공한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등의 체험학습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개선하도록 돕는다.

3회차

Si대학 세우고,
미국 교생 보내고...
취업 경쟁력 키운다



한국체육대의 강재권 교수는 지난해 10월 경찰청장기 태권도대회에서 1위에 올랐다. 전국체전 예선에서 탈락했던 그가 한 달 만에 최고의 성적을 올린 데엔 한국체대의 '스포츠과학 기반 창업 인큐베이팅'의 도움이 컸다. 지난해 9월부터 석달간 한국체대는 태권도 축구 수구·배드민턴·핸드볼 선수들에게 경기력 분석 컨설팅을 제공했다. 스포츠과학 전공자를 모아 경기 패턴을 분석하고 맞춤형 트레이닝을 처방했다. 연구 참여자 중엔 이지용(28·한체대 박사과정) 씨처럼 창업을 꿈꾸는 이도 있다. 이씨는 "태권도 선수 시절 상대방 경기를 미리 분석해 실전에 적용하는 외국팀이 부러웠다. 국내에도 보급하고 싶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전공자에게 현장 경험과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엘리트 체육의 경기력도 높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체대의 '창업 인큐베이팅'은 지난해 9월 대구에서 열린 제2회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포럼에서 발표된 우수 사례 중 하나다. 교육부는 국립대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1500억원 규모의 육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립대들은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활용해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기초·보조 학문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전남대는 지난해 9월 'AI융합대학'을 설립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로봇·미래에너지·빅데이터·IoT(사물인터넷)·인공지능의 4개 융합전공을 개설했다. 정병석 총장은 "재학생과 지역 청년에게 미래형 일자리를 준비하는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고 말했다.

부산대는 발달장애인에게 예술교육을 제공하는 2년제 비학위 과정인 'PNU 꿈나래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강영심 평생교육원장은 "고립된 생활을 하기 쉬운 발달장애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직업인으로 키우기 위해 연구·협창·공예·미술 등 예술활동을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손재주가 좋은 심승보(28)씨는 지난해 장애인미술대전에서 공예부문 특선을 수상했고, 성악에 소질 있는 김지현(24)씨는 평창장애인음악회 무대에 섰다. 경기도 평택의 복지특성대학인 한국복지대는 지역 청소년과 지자체 공무원에게 '유니버설디자인' 체험을 제공한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등의 체험학습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개선하도록 돕는다.

부산대는 발달장애인에게 예술교육을 제공하는 2년제 비학위 과정인 'PNU 꿈나래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강영심 평생교육원장은 "고립된 생활을 하기 쉬운 발달장애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직업인으로 키우기 위해 연구·협창·공예·미술 등 예술활동을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손재주가 좋은 심승보(28)씨는 지난해 장애인미술대전에서 공예부문 특선을 수상했고, 성악에 소질 있는 김지현(24)씨는 평창장애인음악회 무대에 섰다. 경기도 평택의 복지특성대학인 한국복지대는 지역 청소년과 지자체 공무원에게 '유니버설디자인' 체험을 제공한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등의 체험학습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개선하도록 돕는다.

지역사회 기여라는 국립대의 책무에 충실해지려 한다"고 밝혔다.

대학의 특성화 역량을 활용하는 국립대도 많다. 한국교통대는 의료산업과 관련된 3D 프린팅 과정을 제공해 의료 분야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있다. 선박안전·연안 방재 등 해양안전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한국해양대는 지난해 지자체와 함께 '해양안전포럼'을 열었다.

전국 10곳의 국립 교육대학에선 예비 교사의 역량을 높이려는 시도가 활발하다. 공주교대 3학년 김민솔(30)씨는 지난월부터 미국 텍사스의 초등학교에 파견됐다. 국제교육실습 프로그램이란 이름의 '교생 실습'이다.

김씨는 "한국과 달리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수업 방식에 감명받았다. 교사가 되면 나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공주교대는 매년 재학생 60명을 5주 동안 해외에 보내고 있다. 김윤욱 국제교류원장은 "해외 현장을 체험하고 좋은 제도는 한국에 적용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취지"라고 밝혔다.

서울교대는 지난해 교육과정엔 '창의융합 교육' 영역을 신설하고 재학생의 체험 활동, 외부 강사의 수업 참여, 여러 학과 교수들의 합동 교육을 권장한다. 부산교대는 생활관(기숙사)을 중심으로 심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예비 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 평등 문화의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4회차

병천순대 간편식,
강릉 버스 개편...
그뒤엔 국립대 '맞춤교육'



윤석정(58)씨는 충남 천안에서 지역 특산물인 병천순대를 제조하는 공장을 22년째 운영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 외식 문화의 변화로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던 윤씨는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조리하는 '가정간편식(HMR)'을 개발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윤씨의 꿈은 지난해 10월 공주대의 '식육 간편식 전문가 양성과정'을 수강하면서부터 현실화됐다. 공주대가 국내 최대 규모의 양돈단지가 있는 지역 특성을 감안해 윤씨와 같은 식육업계 종사자를 위한 마련한 과정이다.

윤씨는 돼지 위장, 육류 부산물을 활용하는 '오소리감투 골소스볶음' '갈매기살 매운양념볶음' 등의 신제품을 개발했고 편의점에 출시할 계획이다. 그는 "유질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부터 제품의 보존기간을 늘리는 방법까지 맞춤형 교육을

받은 덕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학연 공주대 교수는 "축산의 메카"인 충남의 지역 특성을 살려 가정간편식과 농축산물을 연계하면 지역 특산품도 발굴하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공주대의 이 과정은 지난 1월 대구에서 열린 제2회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포럼에서 발표된 우수 사례 중 하나다. 교육부는 국립대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1500억원 규모의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마중물 삼아 국립대들은 지역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충북대와 한밭대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에 나섰다. 오송 바이오밸리와 인접한 충북대는 '바이오산업 특화인재 양성' 과정을 통해 제약·화장품 연구·생산에 필요한 인력을 키운다. 한밭대는 대전의 19개 기업에 학생을 보내 멘토링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우수 교육생에게 해당 기업 인턴입사 때 서류전형 면제하는 혜택도 준다. 학생에게 지역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주고, 기업엔 우수 인력을 채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사회의 자원·문화를 살려 주민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도 늘고 있다. 전남의 순천대는 지난해 10월 '에코생태 문화체험 박람회'를 열어 주민에게 친화경가치를 공유하고, 학생에게 관련 진로·취업 정보를 제공했다. 경남의 창원대는 주민에게 '다문화 특강', 이주노동자에게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을 운영했다. 지역에 다문화 공감대를 만들고 이주민의 네트워크 형성도 돕기 위해서다.

한국교원대는 캠퍼스 내 교육박물관을 '열린 공간'으로 만들었다. 지난해 7차례 페스티벌을 열어 어린이를 위한 역사·문화 교육을 했다.

제주대는 지난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이해 3·1만세운동, 4·3 사건 등 근·현대사 사건 현장을 학생이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 호남·제주권 대학간 교류 확대를 위해 조선대·전주대와 역사·문화 기반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주민을 위한 홍보 콘텐츠도 제작했다.

크고작은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선 국립대도 많다. 강릉원주대 재학생 9명은 지난해 강릉시에 시내 버스 노선의 개선을 위해 20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학생들이 직접 낱달 간 기존 버스노선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뒤 개선책을 찾았다. 지난 1월 버스노선 개편 때 강릉시는 이들의 제안을 반영해 버스노선 등을 신설했다. 학생들은 바뀐 노선을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마다 QR코드가 들어간 안내문도 붙였다. 충남대는 주민을 위한 '법률 공헌사업'을 진행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과 지역 변호사가 함께 전세 보증금 문제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에게 무료 상담을 했다. 또 생활 법률 상담사례를 엮은 '리걸클리닉' 책을 발간해 상담을 받지 못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손종학 충남대 법률센터장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앞으로 주민에 대한 법문화 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회차

강의 만들어 30개대 공유...국립대 뭉치게 한 '1504억 마중물'



한국방송통신대는 지난해 금오공대·서울교대·서울과학기술대·한국체대 등 4개 국립대의 교수진과 함께 '대학수학의 이해' '셀프 트레이닝' 등 5개 온라인 강의를 제작했다. 공동 개발한 강의는 올 2학기부터 각 대학의 교양과목으로 활용된다.

김옥태 방송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48년 원격교육 노하우를 다른 국립대에 공유해 학생에게 질 높은 강의를 제공하려는 시도"라며 "국립대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면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방송대의 온라인강의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대는 자체 제작한 63개 교양강의를 강릉원주대·한경대 등 6개 국립대 학생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720여개 강의 콘텐츠를 전국 국립대 30여곳과 대구·경북 지역 대학에 공개했다.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국립대들이 협업의 대상과 범위를 넓히고 있다. 국립대뿐 아니라 사립대와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공공기관, 지역 기업, 초중고와 다양한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올해 3년 차를 맞은 교육부의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성과 중 하나다.

전북의 군산대는 전남의 목포대·순천대, 경남의 창원대와 함께 지난해 9월 '공동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역 국립대끼리 힘을 합쳐 입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을 돕고 지역 인재를 키우자는 취지였다. 최현재 군산대 입학관리본부장은 "단순한 홍보에 그치는 대신 국립대들의 장점을 알리면서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목포해양대는 광주교대·순천대·전남대 등 7개

대학과 함께 광주·전남에서 학업 부진으로 고민하는 대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학업 부진의 원인을 찾고 지도교수와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사회 공헌을 위한 대학 네트워크 구성도 활발하다. 지난해 금오공대는 경북보건대·구미대 등 6개 대학과 지난해 '경북 서부권 대학발전협의회'를 설립했다. 이들 대학은 지난해 11월 구미역 광장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연을 열었고 연탄배달 봉사, 장애인 지원 활동도 했다. 경남과학기술대는 경남대·인제대 등 사립대와 함께 '사회책임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지난해 세 차례 '경남 사회적 가치 포럼'도 열었다.

공공기관과의 협력도 활발해졌다. 전북대는 올해 연금관리학 학위과정을 개설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전주 이전을 계기 삼았다. 전북대는 경영·회계·행정·사회복지 등 4개 학과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공을 개설했고, 공단은 실무자를 강사진으로 보내는 맞춤형 교육에 협력한다.

학교와의 협력도 활발하다. 청주교대 문해력지원센터는 지역 초등학교들과 함께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1·2학년 학생을 돕고 있다. 지난해부터 문해력 검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찾고 매일 30분씩 그림책 읽기 등의 맞춤형 지도를 한다.

목포대는 지난해 초중고 20곳과 협력해 교육여건이 열악한 섬마을 학생의 과학교육을 돕고 있다. 지난해 10월 신안군 안좌도의 안좌교에선 '찾아가는 실험실' 행사를 진행했다. 학교 방문, 대학 초청 등을 통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물리실험', 'LED 태양전지 만들기' 등의 실험 수업을 제공했다. 대구교대는 예비교사들의 인문학 소양 함양을 위해 16개의 독서토론 동아리를 운영했다.

이처럼 교육부의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과거 국립 사립 구분 없는 평가 위주의 대학 지원, 구조조정 중심의 국립대 정책으로 인해 침체했던 국립대의 부활에 '마중물'이 되고 있다. 교육부의 국립대학 육성사업 규모는 2018년 800억원에서 지난해 1504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도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예산이 늘면서 단발성 사업에 치중했던 과거와 달리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학 혁신, 지역 상생 프로그램을 추진할 여유를 얻었다고 국립대 관계자들은 밝혔다. 이영석 국립대학육성사업발전협의회장(충남대 기획처장)은 "전국의 국립대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선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유지 확대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PART. 3 | 특집기획기사

국립대, 혁신과 상생의 미래를 연다

2020년도

동아일보 특집기획기사

보도기간
2020. 11. 4. ~ 2020. 12. 23.

1회차

학문의 균형발전 이끄는 국립대...인문학-기초과학 융합연구 활기



나훈아의 '테스형(소크라테스)'이 연일 인기몰이다. 하지만 정작 대학 강단의 소크라테스 강의는 크게 위축돼 있다. 인문학의 상징인 철학이 취업과 실용학문의 조류에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대학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의 40여 개 4년제 대학 가운데 '철학과'가 있는 곳은 국립대인 충남대와 충북대, 단 두 곳뿐이다. 양해림 충남대 철학과 교수는 "기초 인문학 축소 추세가 이대로 10년을 더 가면 학문 후속 세대가 단절돼 교양 인문학마저 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문의 균형발전이 국립대의 주요 미션임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교육부가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초·보호 학문 육성'을 중점 과제의 하나로 삼은 이유다. 충남대 철학과와 학술대회와 초청특강 등에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이 지원된다.



교육부의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이 수행하고 전국 39개 국립대가 참여한다. 국립대학육성사업발전협의회 이영석 회장(충남대 기획처장)은 "국립대가 기초·보호 학문 육성을 위해 융합 연구, 대중강좌 개최, 지역학 지원, 학술지원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며 "이런 활동들은 관련 학문의 진흥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기여,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지역혁신 등 다양한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부산대(총장 차정인)의 자연과학 강연 '알쓸자이(알고 보면 쓸모 있는 자연과학 이야기)'를 아이와 같이 수강한 40대 주부(부산 동래구)는 "엄마로서 감사했다"고 했다. 23차례 강연이 아이들에게 미래 과학자의 꿈을 심어줬기 때문이다. 알쓸자이는 바이러스, 줄기세포, 펩토세계, 종격파, 산업수학 등 말랑말랑하지 않은 주제를 시민 눈높이로 녹여냈다. 경향한 시민 800여 명의 만족도는 92.1%였다. 경상대(총장 권순기)는 전해 도서관 등 9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GNU 찾아가는 인문강좌'를 열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경북대(총장 홍원화)는 기초과학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연구 활성화를 꾀한다. 육성사업 과제로 선정된 사회문제해결형 융합연구 7개 가운데 화학과 석사과정 박종민 씨의 기후변화 논문이 최근 완성됐다. 지도교수인 정성화 교수(화학과는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잡는 고효율 촉매제에 대한 연구"라며 "향후 낙동강 등의 강물 오염 시 불순물 제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대(총장 이진숙)의 '사제동행 특수실험실'은 자연과학 대학원 진학률을 높인다. 전민우 물

리학과 교수는 "물리학, 화학, 해양학, 지질학 등 기초과학 분야 3, 4학년생들이 방학 동안 대학원생 및 교수와 같이 인턴 연구 형태로 대학원 과정의 실험실습을 진행하면서 전공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쌓고 진학 의지를 굳힌다"고 전했다. 충북대(총장 김수갑)는 기초·보호 학문 분야 대학원생 260여 명 전원에게 장학금을 제공해 전공자 확보와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강원대(총장 김현영)는 2018년부터 해마다 '강원대 대회'를 열어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강원도 산하 강원연구원, 아시아강원민속학회, 동해안 바다연구회, DMZ HEIP 센터, 김유정기념사업회 등이 참여하면서 '대학-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협업 플랫폼을 형성해 융·복합 연구를 발전시키고 있다. 전북대(총장 김동원)는 간재학연구소 등을 통해 침체하는 '호남학' 연구의 명맥을 다시 이어가고 있다.

전남대(총장 정병석)는 로봇연구소 등 학내 9개 연구소의 장비(145개)를 지역의 외부 연구기관과 기업 등에 개방하고 있다.

제주도는 세계 최초로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을 획득했다. 제주의 가치를 알리고 공유하는 일은 제주대(총장 송석연) 지구해양과학과가 맡았다.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이 학과 주관의 우도(세계지질공원) 자연보호 및 관리 교육을 받은 초·중학생들은 소감문을 통해 "이제는 우리가 우도를 지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2회차

전공 살려 봉사하고 주인에 법률서비스... 국립대 지역맞춤 공헌 강화



15일 오후 2시 제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사설 유기견 보호소.

제주대(총장 송석연)의 운영인 수의학과 교수(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장)가 이끄는 봉사단이 들어서자 유기견 160여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반겼다. 봉사단은 개들의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정성스럽게 약을 발라줬다. 기생충 약도 먹이고, 중성화 수술까지 했다.

처참한 상태로 왔던 유기견들이 이렇게 회복된 것은 '제주 유기견 엄마'로 알려진 보호소장 이묘숙 씨와 윤 교수 일행의 손길 덕이다. 이 씨는 "매달 방문하는 봉사단의 정성 어린 보살핌이 큰 힘이 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윤 교수는 "제주는 인구 대비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아 뜻깊은 봉사활동이었다"고 말했다. 제주대는 교육부의 국립대 육성사업 지역 기여 과제 가운데 하나로 이 봉사단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39개 국립대가 지역 실정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국립대 육성사업의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의 자원을 나누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일조한다. 이런 역할은 국립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 노릇을 하고 있다.

지역 현안 해결에 팔 걷어

전남대(총장 정병석)는 지난해 '지역민과 함께 하는 인권 및 생활법률 강좌'를 열어 사형제 존폐 문제와 의료분쟁, 이혼 등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29차례의 강좌에 1008명이 몰렸다. 이기욱 리걸센터장(교수·형사법)은 "법률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준법 정신을 높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했다.

강릉원주대(총장 반선섭)는 지난해 강릉문화재단과 함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기획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갯는 밤 강릉바다' 등의 기획에는 지역 문화전문인력 양성과정 참가자들이 참여했다. 공주대(총장 원성수) 중앙도서관은 시민과 함께하는 기적의 책읽기 1박 2일 독서여행을 실시했다.

한국복지대(총장 성기창)는 지역 초중고교생과 주민,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자격증 과정에는 42명이 수강해 3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학 측은 "장애 공감문화 확산과 장애인 감수성 향상을 위해 도입해 7차례 실시한 '유니버설 디자인 체험교육'은 109명이 참여해 91.9점의 만족도를 자랑했다"고 밝혔다.

서울과학기술대(총장 이동훈)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과학청의 융합교육(STEAM)을 실시해 호평을 받았다. 4차 산업혁명시대 평생교육의 의미를 살려 학생과 학부모, 군인가족과 복지관 장애인 학생들도 찾았다.

세대 장애 넓은 강좌, 교육 품성

충북대(총장 김수갑)는 지역 상생의 기초가 되는 공존의 가치 실현을 위해 SCR(Service, Culture, Resource) 공동체 나눔 운동을 활발하게 펼친다. 학생 참여형 사회봉사, 지역 초중고교생 문화교육 프로그램, 대학 시설과 장비 지역 공유 등이다. 인근 주민 이정규 씨는 "대학이 무료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과 대학 인프라 등을 제공해 주민들이 큰 혜택을 받고 있다"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 대학의 존재 이유를 실감한다"고 했다.

경인교대(총장 고대혁)가 지난해 1학기 마련한 'Making is Thinking—재료탐색과 스토리텔링' 전시회는 특별한 관람객들이 찾았다. 평소 미술 작품을 접하기 어려운 시각장애 학생들이었다. 대학은 학생들이 작품을 손으로 만지며 작가의 숨결을 느끼는 '시각장애 학생 대상 터치투어'를 마련했다. 안금희 도서관장(미술교육과 교수)은 "대학 시설과 공간을 활용해 구성원은 물론 지역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며 "지역사회에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특성화대인 한국해양대(총장 도덕희)는 부산지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해양과학꿈나무 캠프와 해양과학영재캠프, 찾아가는 해양과학교실을 열었다.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해양과학꿈나무캠프는 대학 세미나실과 체육관, 수영장 등을 활용했다. 솔라보드 만들기, 해양건축, 생존수영, 해양드론 교육 체험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의 평균 만족도는 9.36점(10점 만점 기준)이었다. 해양과학교실 측은 "한국해양대 교수들이 부산지역 중학교를 찾아가 현장에서 해양과학 문화에 대해 들려줘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춘천교육대(총장 이환기)는 찾아가는 '창·체(창의 체험) 버스'를 운영했다. 초등학교를 찾아가 천체관측 프로그램과 작은 음악회 등을 열었다. 전주교육대(총장 김우영)는 작은 규모의 초등학교를 찾아가 '몽(夢)KIDS 교육캠프'를 열었다. 이 대학 관계자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예비교원의 전문성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3회차

"잘하는 분야 집중해 최고로 키우자"... 국립대 특성화 전략 성과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이 분야만큼은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국내 국립대학 가운데 공과대, 교육대, 해양대, 과학기술대 등의 공통점은 바로 특성화대학이라는 점이다. 이들 대학은 대부분 국립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39개 국립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고유의 역량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 국립대의 특화 전략 및 발전모델 구축은 국립대육성사업의 중점 추진과제다.

금오공대(총장 이상철)는 '캡스톤(Capstone) 프로젝트'를 통해 공학 분야 전문성을 갖춘 기업 맞춤형 전문 인력 및 예비 창업가를 양성하고 있다. 캡스톤이란 건축물 등의 정점에 놓인 장식, 성취를 뜻하는 용어다. 국내에선 공학계열 학생들에게 산업현장에서 부딪치는 문제 해결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졸업논문 대신 작품 기획, 설계, 제작의 전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교육 과정의 의미로 쓰인다.

금오공대에서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수강해 지원받은 학생은 지난해 초부터 올해까지 292개 팀(1165명). 지난해 11월 열린 성과공유 박람회에는 154개 팀이 참가해 이 중 37건이 전문가 등의 평가를 거쳐 특허 출원됐다.

'고압을 이용한 대나무용 화학처리 시스템'을 지도한 이 대학 김영태 교수(기계시스템공학과)는 "이 기술은 개발도상국에서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대나무의 부패를 방지하는 핵심기술로 일부 학생들은 창업가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금오공대는 21~24일 재학생 및 지역 산업체, 지역 대학,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2020년 KIT 엔지니어링 페어(Engineering Fair)'도 연다.

경남과기대(총장 김남경)는 지역청년 취·창업 특화모델을 수립해 저소득층 취업기반 지원 및 공공인재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서울과기대(총장 이동훈)는 'BEAR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생 연구원 제도와 장기현장실습 파견, 5년제 엘리트 과정 등 특화분야 실무형 엘리트 양성에 집중했다.

한경대(총장 임태희)는 현장실습 윈스톱 플랫폼을 구축했다. 현장실습 기관 등록과 지도교수 배정, 실습 수행과 결과 보고 과정을 윈스톱으로 수행해 산업체와 학생 수요에 맞는 맞춤형 현장실습 매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해양대(총장 도덕희)는 해양 특화 대학답게 해양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제화 융·복합 교육, 전문 연구, 해양안전보험 등을 열고 있다.

전국 11개 교육대학은 교육전문가 양성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주교대(총장직무대리 이범웅)는 다문화 교육환경에 대비해 코로나19가 국내에 상륙하기 이전인 2월 60명의 학생들이 미국 텍사스 4개 협력 초등학교에서 5주간 교육실습을 했다. 이를 통해 예비교사의 글로벌 역량 향상과 다문화학생 지도능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진주교대(총장 유길한)도 지난해 라오스의 세계문화유산도시 루앙프라방에서 1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봉사를 했다. 대구교대(총장 박판우)는 예비 초등교원의 융·복합 사고 역량 강화를 위한 다방면의 독서 교육을 진행해왔다.

한국교원대(총장 김중우)는 정보기술(IT) 발전에 따른 수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들을 위한 온라인 원격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지난해 3개, 올해 4개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해 교원 재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했다는 평가다.



부산교대(총장 오세복)는 예비 교원을 대상으로 한 상담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하도록 지원했다. 교내에 상담 상근직을 배치해 재학생들에게 심리상담의 기회를 확대하고, 캠프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상담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교원양성대 총장협의회 회장 대학인 부산교대 김성준 기획처장은 "교대는 미래 초등교원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교육 봉사, 지식 나눔 사업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국립대육성사업을 통해 초등교육과 지역교육의 역량 강화 및 대학의 공적 책무성 강화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특성화 실현을 위해 올해에도 150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4년 차로 접어드는 내년에도 같은 규모로 지원한다. 국립대학 스스로 특성과 여건을 분석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다.

4회차

국립대, 지역대학과 공동수업 개발하고 中小 산학협력 강화 앞장



충북대 재학생 A 씨는 올해 1학기 계절(원격)수업으로 청주대 교양 과목인 '광고로 배우는 아이 디어 발상법'을 수강했다.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였는데 마침 계절수업에 개설되자 일찌감치 수강 신청을 했고 강의를 이수할 수 있었다. A 씨는 "다른 학교의 과목까지 수강 선택권이 넓어져 매우 좋다"며 "다음 학기에도 계절수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대 학생이 청주대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충북대(총장 김수갑)와 청주교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등 충북지역 11개 대학이 계절수업을 공동운영한 덕분이다. 2018년 8개 대학으로 시작해 지난해부터 3개 대학이 추가 동참했다.

올해는 1학기에 충북대 '숨으로 떠나는 건강여행', 한국교원대 '유아교육의 이해' 등 4개 대학이 개설한 6개 과목을 11개 대학 439명이 수강했다.

이문순 충북대 기획처장은 "대학은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학생들은 보다 다양한 수업을 수강할 수 있어 만족도가 큰 편"이라며 "비대면 상황 속에서 온라인 수업 공동 운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립대학들이 대학 간 네트워크를 확대 구축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이 적극 나서고 있다. 국립대뿐 아니라 사립대에도 손을 잡아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공동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한다. 또 교원과 학생 교류, 실험실습기자재 공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가 역점 추진 중인 국립대육성사업의 '대학협력 네트워크 활성화'가 가져온 성과다.

권역별 대학들은 수업 콘텐츠를 공유하고 각종 캠프와 워크숍을 공동 진행하는 등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대(총장 류수노)는 지난해 63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방해 6개 대학 339명이 수강했다. 올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이 늘어나자 1학기에만 방송대 정규 학부과정 555개 온라인 콘텐츠 및 전자교재를 무료 개방했다. 수강 인원은 30개교 1만872명에 달했다.

부산대(총장 차정인)는 지난해 11월 부경대, 동아대와 함께 부산지역 문제 대토론회를 열었다. 학생들이 팀을 이뤄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지역 문제를 주제로 토론 실력을 겨뤘다. 부산지역 7개 대학은 대학생 정책참여 콘테스트를 개최한 뒤 여기서 선정된 8건의 정책 제안이 부산시에 전달됐다.

경북대(총장 홍원화)는 지난해 인동대, 금오공대와 공동 창업동아리 캠프를 운영했다. 3개 대학 재학생 49명이 참가해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대학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또 이들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장기자랑과 한국어말하기 대회를 열고 장애대학생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서울교대(총장 임채성)는 서울 소재 4개 국립대와 학습자 중심의 온라인 강의 자료 제작과 4개 교과목 동영상 콘텐츠를 공동 개발했다.

대학들이 권역별로 교수 학습 지원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공동혁신센터 구축 사업도 활발하다. 전남대(총장 정병석)는 목포대, 목포해양대,

전남대(총장 정병석)는 목포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광주교대와 함께 지난해 '광주-전남 공동교육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10월 공동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이들은 교수 역량 진단 도구 개발, 기초학력 증진 프로젝트, 원격수업 우수사례 공유 등에 힘을 합치고 있다.

충청지역 8개 국립대학도 지난해 '충청권 국립대학 공동교육혁신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클라우드 기반 자원공유 시스템 구축이 주요 사업으로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구축 작업이 진행 중이다.

강원대(총장 김현영)와 강원원주대(총장 반선선) 역시 지난해 8월 강원권 공동혁신센터를 공식 출범시켰다. 양 대학은 교육혁신 포럼 개최, 혁신적 교수 학습법 공동연구, 학생 수준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쉽게 접하기 힘든 열분석기와 원소분석기의 원리와 응용법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 부경대(총장 장영수) 공동실험실습관에서 열린 산학관(産學官) 통합세미나에 참석한 중소기업인 김모 씨의 이야기다. 부경대가 지역사회 및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고가의 첨단 연구분석 장비를 통해 계속과 분석을 지원하고 관련 전문기술 세미나와 워크숍도 열어준다. 부경대 관계자는 "기업체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학관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오공대(총장 이상철)는 '지역 공공성 프로젝트'를 진행해 지역 현안을 제기하고 해결하는데 앞장섰다. 지난해 구미시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 낙동강 수질관리 및 슬러지 자원화,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한 10개 연구과제를 수행했고, 올해는 물순환을 통한 구미산단 그린산업단지화 방안 등 3개 과제를 선정해 수행 중이다.

순천대(총장 고영진)는 지역 초중생의 글로벌 역량 구축사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 30명을 선발해 원어민 강사와 1대 3 영어회화 화상수업을 무료로 진행 중이다. 대학 내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외국인 유학생 20명과 초중생 20명을 1대 1로 연결하는 화상 버디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영어회화 화상수업에 참여 중인 용당초등학교 5학년 정선우 군은 "실력이 검증된 원어민 선생님께서 영어를 무료로 배우는 소중한 기회"라며 "영어회화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회차

취약계층 진로교육 활성화로 국립대의 사회적 책무 다한다



얼마 전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뒤 대전에 있는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학생들은 충남대 법률센터의 김권일 박사로부터 인권 침해, 소송 등 생활 속 법률 이야기와 판검사 및 변호사 등 법조인 직업에 대한 설명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이날 강의는 충남대(총장 이진숙)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 프로그램의 하나인 취약 계층 학생들에 대한 법 진로 특강이다. 지난해에는 대전 원도심 중 고등학교를 찾아가 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교육부의 '우수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으로도 인정받았다.

충남대는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Zoom)과 유튜브 채널로 '영화 속 법 이야기',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과 진로' 등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어려운 법률 용어를 영화와 강연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집중도가 높았다고 한다. 유튜브에 업로드된 전체 교육영상 조회 수는 4000회를 돌파했다. 특히 대전지역뿐만 아니라 세종, 충남 등 타 지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수업에 참여한 한 학생은 "영화를 집중해서 감상해도 기초적인 법 지식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법률 관련 진로에도 흥미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국립대는 교육부의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원으로 취약계층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교육을 확대하는 추세다.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며, 고졸 취업자와 중장년층을 위한 후학습자 전담 과정도 개설하고 있다. 국립대학으로서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해 예년보다 훨씬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창원대(총장 이호영)는 취약계층 생활체육 지원을 하고 있다. 취약지역 4개 학교를 찾아가 312명을 대상으로 배드민턴, 탁구, 축구, 양궁 등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목포대(총장 박민서)는 농촌 및 도서지역 중고교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실험실을 운영했다. 신안 안좌도 등 14개 학교를 찾아가 중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과학 교육을 실시했다. 대학 관계자는 "지역 중고교와 대학이 연계해 교육 양극화 해소와 공교육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역과 대학 내 장애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안동대(총장 권순태)는 다문화교육센터와 장애학생지원시설을 설립해 지역사회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멘토링, 진로직업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학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장애 성인 184명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한국복지대(총장 성기창)는 장애인 고등교육 수행 및 정책 연구기관이라는 대학의 목적성에 맞게 장애인 고등교육의 기초를 다져왔다.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 방안 포럼'과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 장애대학생 특성화 진로 지원 계획, 생애주기별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 장애인 고등교육과정 등을 구축했다.

청주교대(총장 이혁규)도 상대평가로 인해 학점 장학금을 받기 어려운 장애대학생들에게 장애정보와 지원동기, 소득분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9명의 장애재학생에게 생활 장학금을 지원했다. 대학 측은 "예비교사들의 다문화사회, 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학습공동체 운영, 장애인 인권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대학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직장인들을 위한 후학습자 전담 과정도 눈에 띈다.

한밭대(총장 최병욱)는 후학습자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융합 교육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했다. 고령자에 대한 전문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에서 시니어 창의교육을 위한 역량 강화 전문가 과정을 개설했다.

목포해양대(총장 박성현)는 해양 관련 마이스터고 등 고졸 취업자를 위한 '해상안전학시스템학부' 개설을 추진 중이다. 백청강 목포해양대 특임교수는 "현재 15명 정원으로 준비 중"이라며 "해당 학부 신설로 조기 취업자들 및 중장년층의 전문성 확보와 교육 기회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PART. 3 | 특집기획기사

국립대, 다함께 미래로

2021년도

동아일보 특집기획기사

보도기간

2022. 1. 18. ~ 2022. 2. 22.

1회차

"기초학문 없이 미래없다" 국립대, 학문간 균형 발전으로 경쟁력 키운다



"인문학, 기초과학, 예술 등 비인기 학과가 정리된 후 10년 정도 지났다고 해보자. 그때 가서 기초적인 학문이 미비해 더 이상 응용학문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어쩔 것인가."

신지영 경상국립대 철학과 교수는 17일 지역 대학의 기초학문 현실을 이같이 우려했다. 지난해 말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12~2020년 국내 대학의 인문학 학과는 매년 19개씩 사라졌다. 비수도권의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하다. 비수도권에서 철학과를 유지한 대학은 9개 거점 국립대 외에는 드물다. 문제는 신 교수의 지적대로 기초·보호학문의 붕괴가 시간이 갈수록 그 대학의 전체 학문과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잠식해간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립대들은 기초·보호학문을 살려 학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기초·보호학문 연구개발(R&D)과 학문 후속



세대 양성, 외면받기 쉬운 지역학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 순수 기초학의 분야 활성화 등이 그런 노력들이다. 교육부가 국립대 육성사업으로 지원하는 예산의 적지 않은 부분이 이들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충남대(총장 이진숙)의 'CNU 드림꾸러미'는 대학원 진학 자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학부 고학년 또는 졸업생이 미리 대학원에서 자신들이 제안한 연구 주제에 대해 교수의 지도와 특수실험실을 체험하는 '사제동행 특수실험' 프로젝트다. 충남대의 'CNU 자연과학 체험마당'은 중고교생의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기획이다. 자연과학대학 교수, 학부생, 대학원생이 지역 중고교생 318명을 상대로 '수학의 날' '별축제' '화학의 날' '통계의 힘'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부산대(총장 차정인)는 '동아시아 지식학 구축 및 학술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동아시아지식학 분야를 새롭게 열어가고 있다. 2018년부터 시작된 '동아시아지식학 인문학 강좌'를 들은 한 시민은 "실크로드에 대한 여러 자료와 유물들을 접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적었다. 대학 측은 지난해 '동아시아지식학의 세계를 열다' 등 2권의 총서를 발간한 데 이어 올해에는 총서 2권을 추가로 발간한다.

특화 전략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유의 발전 모델을 추진하는 것도 국립대의 역할 가운데 하나다. 경상국립대(총장 권순기)의 '혁신적 노인 간호교육 플랫폼'은 경남지역의 심각한 고령화 현상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됐다. 요양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노인들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Aging in place) 싶어 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대학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 가운데 노인 돌봄 및 서비스 인력의 '공감 능력 제고' 프로그램이 성공 사례로 꼽혔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학과 2학년 홍다빈 씨는 "노인과의 간격을 좁히려는 노력도, 그 이유도 딱히 찾지 못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반성을 하게 됐다"며 "언젠가 나도 합류할 노인들의 삶을 연구하고, 관찰하고, 관심을 갖는 일은 모든 노인 프로그램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을 이끄는 하영미 간호학과 교수는 "앞으로 대학과 보건 의료기관, 공공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 혁신적 노인 간호교육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청년년 취업과 노년기 재취업 로드맵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강원대(총장 김현영)는 '점점지역에서 보는 평화 통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글로벌대학생평화 통일캠프'에 참여해 비무장지대(DMZ) 동쪽 남북 분단 현장을 체험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이론적·로만 알았던 분단의 상층을 눈으로 직접 인했다"고 감명을 표시했다.

춘천교대(총장 이주환)의 '작은 학교 역량 강화' 사업은 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인 교육대생 대상 프로그램이다. 작은 학교에 배치받아 생활해 온 교사들이 온라인 화상회의 등을 통해 소규모 학교의 현장 경험 및 수업 노하우 등을 예비교사들에게 전해준다.

한국고통대(총장 박준훈)는 '캠퍼스 특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자기계발을 돕는다. 지난해에는 19개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 400여 명의 기초학습 역량을 높이고 자격증 취득을 지원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건축학회 '건축'지에 게재된 재학생들의 디자인 작품은 전국 대학에 소개됐다.

거점국립대가 지역사회 발전의 중심축
이영석 국립대 육성사업 발전협의회장 (충남대 기획처장)

세계 교육 1번지로 불리는 핀란드와 독일, 이스라엘, 미국 등의 공통점은 국 공립대학이 고등교육을 이끌어 간다는 점이다. 국 공립대학들은 교육과 연구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며 국가의 성장을 견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립대의 공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교육환경의 변화와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에 큰 위기가 찾아왔고,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 소멸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국립대학육성사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018년 시작된 이 사업은 전국 38개 국립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2월까지 5년간 추진 된다.

지방의 대학과 지역사회가 수도권과의 대등한 환경에서 경쟁하려면 국가거점국립대학들이 지역 사회 성장동력의 중심축이 돼야 하며 지역의 상생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 충남대는 이 사업의 회장 대학으로서 성과 확산과 참여 대학의 네트워킹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 공립대가 대한민국 혁신 주도해야
이호영 전국국립대총장협의회장 (창원대 총장)

지식 사회에서 대학의 미래는 국가의 미래다.

전국 40개 국 공립대학은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고등교육과 지역사회,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공적 책무를 가진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중점 과제로 지난 4년간 추진된 '대학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그리고 이에 따른 '공동 교육혁신센터 및 교육과정 운영'은 대표적인 성과라고 자부한다.

국 공립대학들은 아울러 지역사회 기여와 고등교육 기회 확대, 기초·보호 학문 육성 등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학문의 균형 발전을 추구해왔다. 지역·유형 기능별 대학 간 연계와 협력은 그런 성과의 바탕이 됐다.

대학과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이뤄가도록 국 공립대학은 '코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전국국립대총장협의회는 시대 변화를 이끄는 혁신을 주도하고 다양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2회차

'맞춤형 창업'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현안 해결하며 상생 이끈다



“‘옥수수 수제맥주’는 흙의 씩씩한 맛에 강원도 대표 농산물인 옥수수의 달콤함이 더해진 것이 특징입니다. 강원대 농촌연구소와의 협업 덕분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수제 맥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강원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수제맥주전문점 '감자아일랜드'. 강원대(총장 김현영)에서 독어독문학을 전공한 안홍준(14학번), 김규현 씨(13학번)가 공동대표인 이곳은 지난해 11월 1일 호모 군주를 활용해 만든 옥수수 함량 55%의 수제맥주 시음회를 열었다.

양조와는 거리가 먼 인문학을 전공한 안 대표 등이 독일의 맥주문화와 강원도의 특산물을 접목한 수제맥주사업에 뛰어들고, 점차 이름을 알리고 있는 데는 강원대가 설립한 농촌연구소의 도움이 컸다. 안 대표는 “사업 구상부터 창업, 제품 개발까지 대학의 지속적인 자문과 도움을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창업 프로그램 인기

강원대처럼 전국의 많은 국립대들이 지역의 다양한 실정에 맞춰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학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나누고, 맞춤형 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영하면서 지역 경쟁력을 키우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한경대(총장 이원희)가 운영 중인 '예비 창업농부 창농팜 치유업을 만나다'는 귀농·창업 등을 꿈꾸

지만 농촌 정착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거나 농촌에 기반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윈스톱 시뮬레이션'을 제공한다.

창농 희망자가 사업화하고 싶은 작물을 직접 선택하면 165m² 규모의 시설하우스를 분양해준다. 이후 일대일 멘타-멘토 교육과 전문 농업인의 노하우 전수, 브랜드 마케팅 등 사업화 컨설팅을 통한 판로 개척까지 도와주는 방식이다. 평택 OMG마켓(최린 대표), 화성 미래창의팜(여찬혁 대표), 광주 도담하다(유재은 대표) 등 이 과정을 거친 수강생 63명 중 30명이 실제 창업을 했고, 이들 가운데 단 한 명도 폐업하지 않았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초기총 담당은 “2020년 정부 혁신 교육 분야 10대 우수 사례 선정,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발간 등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제주대(총장 송석언)는 고교생과 대학생의 취업 및 창업 역량을 높이는 데 눈을 돌렸다. 고교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재산 관련 분야 교수, 대학생 멘토를 연결시킨 멘토링 프로그램 '발명 창업 멘토링 캠프'가 그것이다. 지역 내 발명 특성화고교와 연계해 연 2회 인문학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제주 향토문화를 활용한 상표 디자인대회와 제주권역 대학창의발명대회에서 다수의 지식재산권을 따냈다. 이광수 서귀포산업과학고 교사는 “입시 위주가 아닌 흥미 위주의 활동을 중심으로 발명 또는 진로를 목표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녀노소가 겪는 고민 함께 해결

국립대들은 지역의 남녀노소가 겪는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를 눈높이에 맞춰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충북대(총장 김수갑)는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정보, 문화 서비스 수요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Life Solution Center'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역네트워크 △취약계층 Life PLUS △생활문화 혁신 △지역 인재 양성 등 4개 분야의 수요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공존 공생하는 '지역 생활문화 생태계 조성'을 꾀하고 있다.

이 대학 이연지 담당은 “아동과 청소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역량 강화교육, 멘토링 등 밀접 지원과 프로그램별 대상자 및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서울과학기술대(총장 이동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민간산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 내 플랫폼 '지역상생센터'는 소상공인 디자인 개발과 공동동 경춘선숲길 활성화 UX(사용자 경험) 디자인 개발에 나섰다. 디자인과 창업 등을 전공한 학생들이 시장 상인들을 직접 찾아 브랜드 이미지를 반영한 안내판과 현수막을 만들고, 점포 컨설팅을 하고, 노원구 경춘선숲길 상권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을 개발 중이다.

경상국립대(총장 권순기)는 지역에 산재한 선사고대 문화재를 지역과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와 첨단기법을 활용한 전시회를 꾸준히 열었다.

부경대(총장 장영수)는 부산경남 지역 양식어가와 대학의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는 '양식어가 대상 수산물질병 의뢰 및 분석서비스 제공'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양식어가에 발생한 기생충, 세균을 포함한 질병이 발병한 병어들을 육안으로 관찰하고, 해부를 통해 강의로 배웠던 임상증상들이 각 장기에 나타났는지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다. 수산생명의학과 김대열 씨는 “수산물이 식탁으로 오르기까지의 과정들을 자세하게 알지 못했는데, 식탁에 오르기까지 많은 전문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라며 “취업에 대한 정보가 한정된 상황에서 경험을 통해 질병을 진단하는 수산질병관리사에 다시금 매료됐고 후배들에게 경험을 바탕으로 이끌어주는 선배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전남대(총장 정성택)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치진 이들을 위해 농업체형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농업박람회, 농업체험학습, 텃밭 주말농장 가꾸기, 귀농 귀촌 영농기술 교육, 숲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겪는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3회차

장애인과 농촌지역 교육기회 확대 위해 국립대가 앞장선다



발달지연 장애아동의 어머니 김모 씨(40) 이야기다. 김 씨의 아이는 선천적 언어발달 지연과 자폐적,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성향으로 또래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2019년 지인 소개로 공주대 특수교육대학원의 언어재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만족스러웠다.

김 씨는 “지도교수는 이론 부분을, 석·박사 연구원과 대학원생들은 아이를 감정에 집중해 '라포르'(rapport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했다”며 “시설센터는 비용이 많이 들고 만족도가 떨어졌지만 국립대 프로그램은 무료인 데다 만족도도 높았다”며 기뻐했다.

전국 38개 국립대가 장애인, 취약계층, 경력단절자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국립대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애아동 교육여건 개선 및 맞춤형 예비교사 양성

김 씨가 참여한 사업은 공주대(총장 원성수) 특수교육대학원 언어재활 치료 전공의 지역사회 장애학생 언어재활 지원사업. 중소도시의 장애아동들이 전문적인 언어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공 대학원생들은 이 사업을 통해 임상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공주대 특수교육과도 지역사회 장애학생을 위해 신체적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심리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정서 안정 및 가족 기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구교대(총장 박판우)는 병원에 장기 입원한 장애학생을 위해 학생들과 일대일로 연계한 학습 지원에 나서고 있다. 수어(手語)교실을 운영하면서 특수아동과 일반아동을 통합해 가르칠 수 있는 초등교사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강릉원주대(총장 반선섭)는 원주지역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교육·학습·문화 등 사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멘토링 활동을 운영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교육·사각지대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는 건강관리 비대면 프로그램, 해양생물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농어촌 취약계층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농어촌 지역의 부족한 교육 인프라 개선에 힘쓰는 국립대도 있다. 광주교대(총장 최도성)는 농어촌 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과학·IT·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예비교사 학생들이 농어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코딩 사고력, 세계문화 등의 수업을 진행한다. 2020년까지는 직접 찾아가거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운영했으며, 올해부터 오프라인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호 광주교대 교육연구원장은 “대학생들에게는 현장 경험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현장 교육역량을 향상시킬 기회가 되고, 수업을 받는 초등학생들에게는 지역사회에서 배울 수 없는 IT 수업을 들을 기회가 된다”며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고 예비교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안동대(총장 권순태)는 정보소외지역 및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안동대 학생들로 구성된 144명의 재능기부단은 지역 내 종교교를 찾아 정보분석, 기계공학, 전자공학, 의류, 간호 등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12회에 걸쳐 진행했다.

안동대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은 지역 청소년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교육을 체험해 볼 기회”라며 “안동대 학생들도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살려 지역에 봉사할 수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경력단절자 및 자활청년
재취업·창업 방향 제안**

창원대(총장 이호영)는 경력단절자를 대상으로 '메이커 전문가'를 양성하는 '후학습자 꿈드림 교육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메이커란 디지털 기기 등 다양한 기술과 도구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사람을 뜻한다. 창원대의 이 사업은 학내 '메이커 스페이스'에 있는 3차원(3D) 프린터 등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자신의 아이디어 상품을 직접 제작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실제 이 사업으로 경력단절 여성 3명이 각각 공방을 창업했다. 메이커 전문가로 재취업한 수강자는 도서산간지역 등 소외지역을 찾아 메이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창원대의 메이커 스페이스는 사회 적응을 어려워하는 청년들의 자립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지역 도서관 카페, 베이커리, 지역 자활센터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베이킹에 필요한 도구나 데커레이션 소품들을 디지털 장비로 직접 만들 수 있다.

박경호 창원대 메이커아카데미 전담연구원은 "자활청년들이 직접 직업 관련 소품을 만들면서 직업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재취업과 창업에 성공한 경력단절자들이 본인의 수익을 창출하고 성장했다는 사실 자체로 굉장히 기뻐한다. 메이커 교육 선순환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4회차

**해대학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국립대
'상생의 시대' 견인**



"전북 실리곤벨리 실무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회사에서도 좋은 팀플레이어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최고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A 씨는 전북대(총장 김동원)가 전북지역 대학생들의 우수기업 취업을 향상을 위해 마련한 '전북 실리곤벨리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최근 공기업 취업에 성공했다. 이 프로그램은 2년제 장기 집중교육과정으로 반도체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이 주목적이지만, 전 업종에서 필요한 다채로운 실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돼 있어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전북대 외 타 대학 학생들에게도 문을 열어 군산대, 전주대, 원광대 등 전북

지역 대학생들이 같은 혜택을 누렸다. A 씨는 "지방대학 학생으로서 대학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생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 활동이었다"며 후배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강력 추천했다.

많은 국립대들이 대학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사회와 상생에 힘쓰고 있다. 공동교육과정을 개발해 대학 구분 없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적 및 물적 교류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타 대학 학생에게도
수업 선택권 '활약'**

충북대(총장 김수갑)를 포함한 충청권 8개 국립대는 '학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학점 교류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각 대학이 개설한 모든 과목을 다른 7개 대학 학생들이 온라인 수강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학생들은 수강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학점 교류 기간 동안 교류 학교의 도서관 등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19년 처음 시작한 온라인 학점 교류는 첫 해 64건에서 2020년 76건, 지난해 150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2학기 타 대학 2곳의 수업을 수강한 B 씨는 "충청권 국립대학 공동 교육혁신센터"가 주관한 학점 교류 학생 후기 공모를 통해 "학점 교류 기회는 내가 속한 공동체와 시스템에서 벗어나 낯선 환경에서 여기저기 부딪치며 그 속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인연을 맺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지 경험하게 해 주는 기회였다"며 "대학생활에서 반드시 도전할 과제로 학점 교류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진주교대(총장 유길환)와 대구교대, 부산교대 등 영남권 3개 교대는 지난해 9~11월 교육 연구자원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비교과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했다.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이 사업에는 3개 교대 재학생 16명을 포함해 교수, 교직원 등 총 3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속가 능발전교육(ESD)에 관한 다채로운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한국방송통신대(총장 류수노)는 자체 개발한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다른 대학에 개방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라인 수업에 대한 비중이 커지면서 관심을 모았고, 지난해에는 431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방해 4개 대학 131명이 참여했다.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구축해
'원인' 행보**

국립대들은 대학뿐 아니라 지역사회와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생 협력을 꾀하고 있다. 청주교대(총장 이혁규)는 전국의 교사단체 및 연구기관이 함께 연구하고 실천 사례를 나누는 '청주교사교육포럼'을 개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17년부터 매년 1회 열리는 이 행사에는 500명 이상의 교사들이 참여해 학교와 수업에 관해 연구하고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현장 참여가 제한된 2020년에는 화상으로 '줌(zoom) 워크숍'을 열어 400여 명의 교사가 참여하기도 했다.

한국해양대(총장 도덕희)는 부경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해사고, 해기사협회, 해운협회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해기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해 15차례에 걸쳐 예비 해기사 2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선박박사대응훈련과 선박주기관VR 교육을 실시했다.

전북대는 부산외국어대와 함께 아시아특수언어 캠프를 마련해 전국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 일반인들에게 무료 언어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 각 2주일 내 50시간 동안 베트남어, 미얀마어, 태국어 등 6개 언어를 교육한다. 지난해 여름캠프에는 9개 대학 47명, 이번 겨울 캠프에는 17개 대학 62명이 수강했다.

순천대(총장 고영진)는 지난해 3월 대학생과 시민들이 외국어를 학습하고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소규모 학습 공간, "글로벌 카페"를 만들어 개방했다. 코로나19로 해외 연수나 여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외국인 간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운영해 지역 주민의 국제화 역량을 높이고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글로벌 카페에서는 원어민 강사가 영작문과 영문이력서 작성법을 지도하는 라이팅 클리닉(Writing Clinic), 그룹별로 영어토론과 영어영상 시청을 할 수 있는 영어회화 클럽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시간과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2학기에는 국내 사찰과 전주 한옥마을 등의 문화체험을 내용으로 한 '버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내·외국인 135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제교류의 날을 운영해 지역 주민 등 440여 명이 찾아오기도 했다.

글로벌 카페 사업을 총괄 기획한 천지연 순천대 국제교류교육본부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외국어와 해외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

하고 싶었다"며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론뿐 아니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5회차

**국립대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해 장애인과
노인의 삶 도와요**



"이제는 아이와 아내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더 멋지게 카메라로 포착할 수 있게 됐어요."

전남 영암군에 사는 박인수 씨는 어느 곳이든 거침없이 오르내리면서 가족의 사진을 찍어주지 못하는 게 늘 아쉬웠다.

박 씨는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를 당해 이동할 때마다 휠체어를 타야 한다. 그랬던 박 씨가 지난해 9월 드디어 자유자재로 가족의 모습을 앵글에 담게 됐다. 박 씨의 소망은 어떻게 이뤄졌던 것일까.

장애인 및 노인과 더불어 살기

박 씨는 목포대(총장 박민서)의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신의 꿈을 이뤘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 프로그램에서 드론(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자격증을 취득한 것. 박 씨를 포함한 7명이 같은 자격증을 뒀고, 다른 장애인들도 하모니카, 디저트 만들기, 서양화, 요가 등을 배웠다.

박 씨는 "드론 덕분에 가족과의 여가 생활이 더 풍요로워졌다"며 "농악 살포시 가능한 드론 1종을 취득해 부모님의 농농사도 돕고 싶다"고 말했다.

국립대학은 △기초충량 진흥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고등교육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사회적 공적 책무도 수행한다. 이 가운데 '지역사회 기여' 분야는 주민들의 피부에 가장 와닿는 역할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전국의 많은 국립대학들이 다양한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밭대(총장 최병욱)는 '메이커스페이스'를 활용한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용품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한밭대와 건양대(총장 이철성), 사회적 기업 ㈜공생의 메이커스페이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등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목소리', '제3의 눈' 등 장애인 생활용품 아이디어를 냈고 이 가운데 일부를 시제품으로 제작했다.

관련 경진대회 심사에 참여했던 위즈온 협동조합의 오영진 이사장은 "대학이 장애인들을 위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개선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대학의 자원을 지역사회와 공유

국립대들은 대학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에 나눠주고 공유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대학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고 소외된 부분을 채워나가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부산대(총장 차정인)의 '부산대와 함께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은 지역민들이 문화와 역사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부산대는 금정구, 해운대구, 동구 등 3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시민 인문 아카데미'를 열고 각종 강연을 진행한다.

특히 금정 시민인문 아카데미는 교육기관 정부혁신 10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부산 동구에서 진행된 '산복도로 인문학 캠퍼스'는 '산업화와 동구의 회로애락', '동구 인의 또 다른 세계문화', '동구의 근·현대 역사 건축물' 등 지역과 관련한 주제가 많아 주민들의 호응이 유독 높았다.

이 지역 주민들은 "미술사를 통해 우리 민족의 우수함과 위대함에 대한 자긍심을 느꼈다", "딱딱한 이론 수업이 아닌, 내가 살던 시대와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강의해서 재미있었다"는 소감을 밝히는 등 참석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경인교육대(총장 김창원)의 '대학-지역사회 협력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초·중·고교생과 지역민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테크놀로지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과 8월, 11월에 '데이터로 상상하라'라는 주제의 전시도 열었다.

이 전시에선 미래 정보 자산인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화한 작품들이 눈길을 끌었다. 전시를 본 한 참석자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데이터로 표현한 작품이 인상적이었다"며 "환경 보호를 위해 작은 실천으로 천연비누를 제작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군산대(총장직무대리 김동익)는 박물관과 해양수산실습원을 활용해 '문화유산 Job Go! 꿈 Job Go!'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학생들에게는 진로 탐색 기회를, 주민들에게는 씨푸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대구교육대(총장 박판우)가 운영한 '지역주민과 학생, 교직원을 위한 아우름 콘서트'는 학생, 교직원 및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을 지원하는 국립대 프로그램들도 많다. 금오공대는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노인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노인 리더'를 양성하고 있다. 지난해 10~11월에는 '노인 리더 지식 증강'(buildup) 프로그램도 개최했다. 생생 체조, 밸런스 워킹 등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신체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열렸다. 참석한 노인들은 "다음에는 스마트폰 활용법과 건강상식 등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강의를 열어 달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부산교육대(총장 박수자)는 '한세문해학교'를 열어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과 다문화 이주민들에게 한글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또래 집단을 활용하는 '대학생 솔리언 또래 상담자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솔리언이란 'solve'(해결하다)와 'ian'(사람을 뜻하는 접미어)의 합성어로 고민을 듣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돕는 또래 친구를 뜻한다. 이 교육을 받고 교사로 임용된 김하은 오륙도초등학교 교사는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또래상담 기법이 매우 유용하다"고 말했다.

지방대학 시대를 이끄는 국립대학

2022년도
중앙일보 특집기획기사

보도기간
2023. 1. 20. ~ 2023. 2. 17.

1회차

어묵산업 가르치고
막걸리 연구...국립대
'지역거점' 변신 중



강원도 춘천시에는 특별한 '코'가 있다. 막걸리 향을 맡으면 A 막걸리와 B 막걸리 맛과 향의 차이는 어떻게, 왜 나지 정확하게 알아낸다. 강원대 누룩연구소에서 제작한 '전자 코'다. 전자 코는 막걸리나 수제 맥주 등을 만들 때 도움을 준다.

발효 미생물 연구로 유명한 강원대는 지역 전통 주 산업 발전을 위해 2019년부터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누룩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배양한 우수한 효모를 지역 주류 업체에 제공하거나 기업들이 고가의 연구 장비를 사용해 새로운 주류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해까지 강원 지역의 주류 업체 17곳에 기술 지도를 했고, 지평주조, 하이트진로 등과 업무 협약을 맺어 우수 주류를 개발하고 있다.

김명동 누룩연구소 소장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를 사서 개발하고 있다"며 "국립대가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든든한 배후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38교에 연간 1500억원 지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국립대가 대학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와 소통해야 한다는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국립대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모든 국립대 38개교에 연간 800억~1500억원을 지원했다. 각 대학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지역 주류 산업에 기여하고 있는 강원대와 같이 지역마다 다양한 사업이 추진됐다.

부산 부경대는 대학 연계형 고교학점제 과목을 개설해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부경대는 지역 고교생 수요를 조사해 개설 희망이 많았던 '기업 경영 마케팅' 과목을 개설했다. 마케팅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함께 이론 공부를 하고 지역에 특화된 유통, 어묵 산업 등을 실제 기업 사례를 통해 분석하기도 했다. 부경대 관계자는 "지역 고교생들이 마케팅 분야 진로와 진학에 대한 정보를 잘 알게 된 것은 물론, 조교 역할을 한 대학생들의 실력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기초학문 보호, 국립대 대학원
장학금 두 배 넘게 늘어

대학 간 네트워크도 활발해졌다. 전북대는 부산 외대와 협약을 맺고 전북 지역 학생, 지역 주민, 고교생 등이 수강할 수 있는 '동남아 언어캠프'를 2019년부터 매년 두 차례 열고 있다. 베트남어, 태국어, 미얀마어 등의 수업을 개설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부모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도 있고, 동남아 언어에 관심이 많지만 전북 지역에 관련 학과가 없어 교육 기회가 없던 학생들에게도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호평 받았다"고 말했다. 국립대 간 네트워크 사업은 2017년 57건에 불과했지만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실시한 이후 2021년 14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기초학문을 보호하고 지역 인재를 키우는 국립대 본연의 역할도 강화되고 있다. 충남대의 'CNU 드림꾸러미'가 대표적이다. 자연과학계열 기초학문 교수와 대학원생·학부생이 한 팀이 돼 학부 과정에서 대학원 수준의 연구 활동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좋은 연구 성과를 거둔 학부생에게는 연구 장학금도 준다. 2021년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졸업생 39명 중 28명이 충남대 대학원에 진학하며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기초학문 분야의 국립대 대학원생 1인당 장학금은 2017년 193만3000원에서 2021년 488만1000원으로 늘었다. 대학원생 논문 실적도 125건에서 168건으로 늘었다.

대학가에서는 국립대의 공적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만한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원섭 국립대학육성사업발전협의회 회장(충남대 기획처장)은 "지난 5년간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국립대가 지역 교육의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해왔지만, 국가 균형 발전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2회차

낙지 마스크트,
벽화...지방소멸 막기
아이디어 내는 국립대



대전 유성구와 대전 한밭대·충남대는 지난해 9월 '유성구 대학 청년기획단'을 꾸렸다. 여기에 유성구 직원과 학생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지역 국립대와 자치단체가 이런 조직을 만든 건 드문 일이었다. 이들은 3개월간 유성지역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대전이 재미없는 도시라고?"

이들은 유성온천·노은역 주변 등 6곳을 공인 자유 구역으로 지정하자고 했다. 공인이 자주 열리면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거란 판단에서다. 대관 플랫폼 아이디어와 운영수칙을 만들고 유동 인구도 분석했다. 또 장애인 불법주차를 실시간으로 단속할 수 있는 인공지능도 제안했다.

지방소멸 막자...
손 잡은 국립대·지자체

전국 국립대와 지자체가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눈앞에 다가온 지방소멸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선 힘을 모으는 게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소멸위험 지역은 2005년 33곳 시·군·구에서 2022년 113곳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전국 228곳 중 거의 절반(49.6%)에 해당한다.

국립대인 목포해양대는 지난해 11월 안양대·예수대 등 사립대 2곳 학생들과 9개 팀을 만들어 원도심 활성화 아이디어를 짜냈다. 주민등록상 인구 8000명이 되지 않는 목포시 목련동에는 지역 특산물인 세발낙지를 활용한 마스크트 제작과 기념품 가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곳은 근대역사관 등 대표 관광지를 품고 있지만, 관광객을 머물게 할만한 마땅한 자원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목포해양대 국립대학육성사업단 임은희 주무관은 "각 팀이 1박 2일간 현장답사를 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지역사회 문제점 찾아 해결방안 제시

강릉 원주대의 사다리(査多利) 프로젝트도 비슷하다. 사다리는 학생들이 지역사회 내 크고 작은 문제점을 조사한 뒤 '다'각적인 협력으로 이를 풀어 '이'득을 만들어보자는 의미다. 원주대 학생들은 장애인 가족에 필요한 취업과 재활, 부모심

리분야 등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장애인복지시설에 전달했다. 또 강릉 바우길 도보 여행자를 도우려 관광지 못자리·책자를 만들었다.

대학이 가진 문화·교육 인프라 활용에도 적극적이다. 한국교원대는 캠퍼스 내 교육박물관에서 지난해 지역과 생태 환경을 주제로 한 특집기획 전시를 열었다. 교육박물관은 주시경 선생의 문법서 「조선 말갈」, 「일장기 개조 태극기」 등 다양한 유물을 보유하고 있다.

4500명 물린 어린이날 행사

한국교원대는 '미호강 따라 동네 한 바퀴'란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아이들이 가로 12m, 세로 2.4m 크기의 대형 벽화제작에 참여하며 청주 지역 이해를 높였다. 또 멸종위기종 미호종개 등 하천 생태를 관찰했다. 지난해 물총놀이 등 풍성한 내용으로 차린 한국교원대 어린이날 행사엔 4500명이 찾았다.

목포해양대도 지난해 10월 목포항구축제 기간 중 실습선(4700t급)을 활용해 선박 VR이나 심폐소생술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경북대는 희망 나눔공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도우면서 교육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학생 버스킹공연, 야외연극·마임공연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국립대학육성사업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지방 대학시대를 이끌기 위해선 지역과의 상생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전국 모든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은 육성사업을 통해 꾸준히 지역과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회차

초등생 멘토링,
어른엔 뜨개질...교문 밖
교육나선 국립대



전남대 'Dream UP' 멘토링...
학생들 '형에게 더 배울래요'

"어릴 때 동네 형에게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고, 진로나 진학 관련 고민 상담을 한 덕분에 중간에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대학에 올 수 있었어요."

전남대 여수캠퍼스 수산생명과학과 2학년 장우석(23)씨는 9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초·중·고 때 멘토링의 중요성을 알아 'Dream UP(드림업)' 멘토로 참여하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Dream UP'은 전남대가 여수시교육지원청과



함께 취약 계층에 속하는 초·중등 학생의 학습과 특별 활동을 지원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멘토링이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멘토)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멘티)에게 지도나 조언을 해 주는 것을 말한다.

장씨는 지난해 8월 1일~12일 매일 4시간씩 여수 한 초등학교 5·6학년 남학생 2명에게 영어·수학 등을 가르쳤다. 수업은 주로 전남대 여수캠퍼스 내 글로벌교육원 강의실에서 했다. 카페에서 공부하거나 전화로도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틈틈이 대학 캠퍼스 투어와 진로 탐방, 영화 관람 등도 함께했다.

장씨를 비롯한 전남대 학생 15명은 해당 기간 여수 지역 초·중·고 학생 23명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멘토로 나섰다. 멘토들은 활동비로 70분당 3만원을 받았다. 장씨는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도 두 제자를 아무 대가 없이 가르치고 있다. 학생들이 "형에게 더 배우고 싶다"고 조르면서다. 전남대는 지난해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지역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한 초·중·고 학생-대학생 전(全)주기 성장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전남대 학생 35명이 8개월간 광주 지역 취약 계층 초·중·고 학생 35명의 학습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CNU 반올림 클래스'도 호평을 받았다.

순천대 '생태와 환경' 과목 개설

전국 38개 국립대가 지역 혁신과 상생의 거점이 되고 있다. 대학의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과 발전 모델을 통해서다.

순천대는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기반 고교 학점제'라는 고교·대학 공동 교육 과정을 만들었다. 세계 각국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추진하는 흐름을 반영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전남교육청·순천시교육지원청·순천생태문화교육원과 지역협업체를 구성해 '생태와 환경' 과목을 개설했다. 교재도 집필했다. 순천 지역 5개 고교 학생 20명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순천만의 생물 다양성과 탄소 중립 기여도 등을 배웠다. 순천만은 22.4km²의 갯벌과 5.6km²의 갈대 군락지에 조류 252종과 동식물 1600여종이 서식해 생태계 보고(寶庫)라 불린다. 순천여고 한 학생은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다가 수업을 듣고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역 환경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공주대, 미술·음악·운동 배움터 지원... "공동체 활성화 역할" <

지역 주민에게 미술·음악·운동·요리 등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국립대도 있다. '지역 사회 밀착형 마을 배움터 지원 사업'을 추진한 공주대가 대표적이다. 공주대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공주시·세종시에 있는 주민 모임(최소 6명 이상) 14개에 배움터와 함께 강사비, 수업 재료비 등을 지원했다. 수업에 참여한 모임들은 주로 같은 마을 이웃이나 직장·학교 동료 등으로 구성됐다.

한 직장인 동아리는 공주대 산학협력관에서 손뜨개질을 배웠다. 공주시 한국통합교육상담개발원에선 학부모와 자녀 9명이 여름 방학 동안 그림책을 필사했다. 공주대는 배움터마다 최대 165만원씩 지원, 학습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최인숙 공주대 평생교육원 주무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좁아진 사회 관계망을 다시 넓히고 마을 단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계 주된 역할"이라고 말했다.

전주교대, 예비 교사 교육 프로그램... "현장 경험 공유" <

전주교대는 예비 교사인 재학생들에게 현장 교사들의 현장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초등 교원의 전문성 및 인성 함양을 위한 현장 기반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주교대 재학생 113명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신나는 교실 놀이' '미래 교육과 코딩 교육' 등의 수업에 참여했다. 재학생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91점이 나올 정도로 높았다.

한국방송통신대, 이주여성·외국인 한국어·취업 교육 <

한국방송통신대는 결혼 이주 여성과 외국인 유학생 등을 위해 ▶ 한국어 강좌 ▶ 취업 지원 교육 ▶ 정착 지원 교육 등 '다문화 학습자 대학 수학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해마다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비중이 커지면서 이들이 언어 문제나 사회적 편견 등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결혼 이민자

및 국적 취득자는 37만2884명이다. 2010년 22만1548명에서 10년 만에 15만명가량 늘었다. 한국방송통신대는 전국 13개 지역 대학, 31개 시·군 학습관 등을 활용해 다문화 학습자의 역량 개발과 네트워크 조성도 돕고 있다. 한국방송통신대 관계자는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임실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역 내 유관 기관을 통해 교육 수요자를 발굴한다"며 "외국인과 이주민의 실질적인 경제 활동 지원과 학업 중단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중용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 회장(충남대 기획처장)은 "국가 발전과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립대 간 협력과 공유가 필요한 때"라며 "국립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지식을 창출하고, 지역 성장 역량을 강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회차 <

군대가는 사장님 왜 나온다...국립대 '대학 밖 인재' 육성 <



지난 2020 도쿄올림픽 수영(자유형) 200m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황선우(19) 선수 뒤에는 한국체육대 스포츠영상분석팀의 조력이 있었다. 한체대 팀은 경기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황선우의 동작, 구간별 기록 등을 제공했다. 국립한체대는 국내에 전문 인력이 많지 않은 스포츠 과학 분야를 집중 연구한다. 학교 소속 선수 뿐 아니라 청소년, 국가대표 등 필요한 곳에 과학적인 운동 분석을 지원한다. 한체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포츠과학 분석이 필요한 곳이라면 연구 역량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국립대, 연구·지역 특성 살려 대학 밖 인재도 양성 <

국립대는 한체대처럼 대학이 가진 고유 특성을 살려 학교 안팎에서 인재를 키우고 있다. 강원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강원도에 근무하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취·창업 교육을 했는데, 2019년부터 작년까지 422명의 장병이 참여해 사업 아이디어를 냈다. 수동 뚜껑에 원터치 소독제를 부착, 응급시 소독약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아이디어는 지난해 육군 창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창원대는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했다. 지역 내 다른 창업단과 협력해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의 사용법을 가르쳤는데, 지난 5년간

201명이 참여했다. 창원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실습 위주로 운영하면서 예비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했더니 주민에게 호평을 받았다"며 "아이디어를 3D로 구현해보면서 수강생이 창업에 자신감을 얻는다"고 했다.

지역 문제 발굴, 교과목 개설해 해결 방안 찾아 <

지역과 연계한 교육 연구도 강화하고 있다. 전북대는 군산대·원광대 전주대와 공동으로 '전북 실리곤벨리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차량 반도체 설계와 관련한 실무 교육을 지역 기업과 함께 마련했다. 2021년 956명이 교육을 받았고, 지역 기업과의 산학워크숍에도 140여명이 참석하는 등 반응이 좋았다. 전북대 관계자는 "지역 핵심 산업인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과학기술대는 민·관·학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학이 주민·지자체와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교과목으로 개설해 연구했다. 충청 지역에선 한국교통대와 한밭대가 3D 프린팅, 교통정보, 자율주행 등 각 대학의 특화 분야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국립 교육대학은 예비교사 전문성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부산교대는 학생들이 현장 교사와 상담을 하고 올바른 교직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직관 함양 캠프'를 열었다. 청주교대와 광주교대도 예비교사 멘토링 프로그램 등 전문성을 키우는 활동을 지원한다.

"국립대 발전이 지역혁신으로 이어져" <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국립대도 많고 있다. 충북대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고교를 위해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72개 강좌를 운영했다. 지난해에만 충북 46개 고교에서 4162명이 참여했다. 충북대 관계자는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과목을 대학이 개설하면서 학생 선택권을 넓혔다"고 했다. 부산대는 지역 대학과 연합해 해외 봉사단을 조직했다. 태국, 베트남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학교 건립도 도왔다. 2018년 해외 봉사단의 도움을 받았던 태국 학생 두 명이 이듬해 부산대에 진학하기도 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강화에 도움이 된 것은 물론, 현지의 우수 학생을 우리 대학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정중용 국립대학육성사업발전협의회 회장은 "국립대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인재 양성이 결국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가 균형 발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연구기관으로서 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2년도 <

동아일보 특집기획기사 <

보도일자

2023. 2. 27.



"연간 1500억 지원해 기초학문 보호, 지역혁신 이끌어" <

충남대 자연과학대학이 운영하는 'CNU드림꾸러미'는 순수학문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교수와 대학원생, 학부생이 함께 만드는 사제동행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부생들은 대학원에 가기 전 교수, 대학원 선배들과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미리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 속에서 전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키울 수 있고 대학원 진학의 꿈도 키운다. 충남대 관계자는 "순수 학문 진흥과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고안한 프로그램인데 학부생들의 호응이 좋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립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이차림 기초 학문 및 특화 학문 육성 사업을 펼치고 있다. 우수 지역인재를 양성하면서 국립대의 공적 역할과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이다. 충남대는 국립대학육성사업발전협의회 회장교로 국립대 육성사업의 실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5년간 매년 1500억 원 지원 <

교육부는 육성사업을 통해 국립대들이 △기초 학문 및 특화 학문 육성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 수행 △특화 전략을 통한 역량 강화 △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고등교육 기회 확대 등 사업대와 차별화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 규모도 상당하다. 교육부는 2017~2021년 5년 동안 전국 38개 국립대에 매년 1500억 원 안팎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17년 1481만원에서 2021년 1831만원으로 23.6% 상승했다. 교육비 중 도서 등 구입비는 35만원에서 82만원으로 인상됐다.

교육부는 국립대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지원금도 확대했다. 국립대 기초분야 전공 대학원생의 1인당 장학금은 2017년 193만 원에서 2021년 488만 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학원생 논문실적이 25.6% 상승한 것에 이 같은 지원이 한 몫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립대 대학원 지역인재 및 기회 균형 모집 비율은 15.57%에서 23.7%로 높아졌다.

대학과 지역사회 연결하는 국립대 <

교육부의 지원 속에 국립대와 지역 사회의 협력도 활발해졌다.

부경대는 '양식어가 대상 수산생물 질병 의뢰 및 분석서비스' 사업을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했다. 부산경남 지역의 양식어가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부경대는 질병에 걸린 어종을 발견하거나, 해부를 통해 질병이 장기로 번져가는 양상 등을 확인해 알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양식어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대학과 지역의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2017년 57건에서 2021년 141건으로 2.5배 가까이로 높아졌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네트워크 활성화 전략이 대학과 지역의 공동 성장의 토대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들이 서로 힘을 합치는 모델도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충청권 국립대학 공동교육혁신센터(CHEC)'다. 충북대가 주관한 이 사업은 충청

권 8개 국립대가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다. 대학 간 학점교류 시스템을 개통해 8개 국립대의 시너지도 높이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충남 지역 학생들의 학점교류 온라인 시스템 만족도는 3.38점(4점 만점)을 기록했다. 충북대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국립대들이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발적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고등학생 지원에도 적극 나서 <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도 국립대들의 최근 관심사 중 하나다.

목포대의 경우 '찾아가는 찾아오는 실험실'을 운영 중이다. 농어촌 및 도서 밀집 지역인 전남 서남권의 지역 청소년들을 초청해 과학 실험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목포대 관계자는 "교육 소외 지역인 농어촌 및 도서 지역 중고교생에게 양질의 대학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육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대의 '전통시장상인 건강관리사업'도 우수 사례로 꼽힌다. 제주대 간호학과 학생 88명이 참여해 지역 시장 상인 349명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사업이다. 학생들은 현장 실습 경험을 얻을 수 있어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정중용 국립대학육성사업발전협의회장(충남대 기획처장)은 "전국 국립대들이 국립대 육성사업을 통해 지난 5년 간 지역 혁신을 이끌고 상생 발전의 기틀을 다졌다"며 "올해 확대 개편될 국립대 육성사업을 통해 희망이 넘치는 지역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했다.

매일경제 특집기획기사

보도일자
2023. 2. 23.



“힐링농업으로 소방관 PTSD극복 돕조”

경기도 안성시 소재 한경대엔 특별한 ‘마을’이 있다. 한경대가 운영하는 치유농업 특별기획 프로그램인 ‘심심한(心審閑) 마을’이 그 주인공이다. ‘치유농업을 통해 한가로운 마음을 살피다’라는 뜻을 가진 이 프로그램은 소방관, 경찰관 등 고위험 직업군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회복에 중점을 두며 진행되고 있다.

2021년 시작된 이래 지역 인근 소방관과 경찰관 등이 참여해 심리상담을 받았다. 동식물 치유활동을 하며 농장 둘러보기, 수확한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교실도 진행했다. 2021년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에서 스트레스 관련 지표가 개선되는 등 회복 효과도 검증됐다.

교육부는 한경대의 심심한 마을과 같이 ‘국립’으로서 공공성 강화와 ‘대학’으로서 교육 연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립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3년에 추진했던 국립대 혁신지원사업(Point)에서 2018년부터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확대 개편해 국립대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국립대 38개를 대상으로 2018년 800억원, 2019년 1504억원, 2020년 1425억원, 2021년·2022년 각각 1500억원 등을 지원했다.

대학별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살펴보면 경북대는 최근 지역 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대구·경북권 국립대 공동교육혁신센터 교육혁신사업을 실시했다. 경북대, 금오공대, 안동대, 대구교대 등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으로 경북대는 ‘나만의 콘텐츠 제작 온라인 특강’ ‘영어 프레젠테이션 역량 강화 캠프’ 등을



개발하고, 금오공대는 ‘KIT 엔지니어링 페어’를 개최했다.

안동대는 ‘아나운서에게 배우는 스피치 특강’과 ‘재학생 글쓰기 클리닉’ 등을 운영하고, 대구교대는 ‘MBTI 심리검사를 활용한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검사를 통한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은 공동교육혁신센터 출범식을 개최하고 4개 국립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관련 회의와 워크숍 등을 진행했다.

안동대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과 함께하는 세계이해교육’을 진행했다.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이 출신 국가의 문화에 대해 경상북도 내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소개하는 것이다. 청소년 대상 캠퍼스 투어와 동아리 문화 공연도 같이 진행했다. 지난해 4월에 있었던 교육 프로그램엔 경북 영주 소재 영광여중 재학생 110여 명이 참석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고 평가했다.

춘천교대는 특화 전략 발전 모델 구축을 위한 ‘작은 학교 인턴십’을 진행했다. 춘천교대 재학생이 작은 학교를 방문해 닷새간 수업 진행 보조와 학생 관리·지도 보조, 행정업무 보조 등을 하는 것이다.

대면·온라인 영상회의 플랫폼과 각종 메신저 등을 활용한 멘토링도 실시했다. 규모가 작고 외곽 지역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예비 초등교사에게 사전에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 작은 학교에 대한 학급 경영 역량과 학생에 대한 수업 전문성을 증대하는 것이다.

정중을 국립대학육성사업발전협의회장(충남대 기획처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립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올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국립대학 육성사업이 새롭게 확대 개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다

2023년도

중앙일보 특집기획기사

보도기간
2024. 2. 16. ~ 2024. 3. 15.

1회차

‘혁신 바람’부는 국립대...전공 허물고 옆 대학과 협력 속도



부산대는 지난해부터 ‘PNU펜토미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학부 4년간 교육 과정을 학생 스스로 설계하는 게 펜토미노 시스템의 요점이다.

여기에 복수의 학과가 공동으로 융합 수업을 개설하는 ‘전공탐색 학부’, 입학 후 진로에 따라 다양한 학과 수업을 수강하는 ‘전공특화트랙’도 신설할 계획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선 단순히 입학 전형만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커리큘럼 내용 전체를 뒤섞는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98개 학과 중 65개 팀이 수업 혁신 연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국립대의 ‘벽 허물기’ 실험이 본격화됐다. 학내 학부, 학과 경계를 두지 않고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넓히는 시도가 이어지는 것은 물론, 학교 간 연합이나 지역 사회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변화에는 최근 규모가 대폭 확대된 ‘국립대학 육성사업’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대학가 중론



이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 37개교의 학생 수·교육여건 지표·혁신 노력 등을 평가해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2018년 지원금 800억 원 규모로 시작해 지난해에는 4580억 원, 올해는 5722억 원으로 지원금 규모가 크게 늘었다. 지역 국립대 입장에서 생존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린 셈이다.

교육부 장관 “전공자유 확대, 물러설 수 없는 원칙”

7년째를 맞은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주요 과제는 대학 안팎의 벽을 과감하게 허무는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전공자유선택제(무전공)를 주요 지표로 활용해 사업 지원금(인센티브)을 나눠줄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전공자유선택제 선발 비율을 최대 25%까지 확대하는 방침에 대해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학생 전공이 입학부터 결정되는 기존의 학부·학과제로는 급변하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융합 역량을 기를 수 없다는 것이다.

사립대와 연합 콘텐츠 만들고, 지역 아동 심리상담하고

대학 간 벽을 허무는 시도 역시 일부 국립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비로 지역 내 사립대, 병원과 주요 실습 자원을 공유하는 국립창원대가 대표 사례다.

창원대는 2022년부터 창원시, 창원지역 4개 사립대학(경남대·마산대·창신대·창원문성대)의 간호학과, 3개 병원(삼성창원병원·창원경상국립대

학교병원·창원한미음병원)과 ‘창원간호교육플랫폼’ 사업을 진행했다. 각 학교 교수들이 집중 학습이 필요한 분야의 콘텐츠를 영상으로 촬영해 공유한다. 유주연 창원대 간호학과장은 “간호학과는 전공, 임상경력, 경력에 따라 교수별로 특기 사항이 다 다르다”며 “이런 인적 자원을 지역 5개 대학이 함께 공유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 대학도 있다. 공주교대는 육성사업 지원금으로 지역 취약계층 아동들 상담하는 ‘도덕도덕 프로그램’을 3년간 운영해왔다. 대학원의 아동청소년 교육·부모교육가족상담전공생 30여 명이 지역의 다문화·한부모·장애아·재혼가정 자녀를 주기적으로 상담하며 교수진의 수퍼비전(상담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정중을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장(충남대 기획처장)은 “이 밖에도 기초·보호 학문분야의 대학원생 1인당 장학금, 지역인재 모집비율, 해외기관과 공동연구 건수 확대 등도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성과로 꼽힌다”고 말했다.



전공 섞고 실습 더 많이... '빅블러' 시대 융합 인재 키운다



서울과기대는 3년 전부터 다른 대학들보다 일주일 이른 2월 말에 개강한다. 올해도 26일부터 첫 수업에 들어간다. 학기도 밀도 있게 운영해 일주일 정도 줄었기 때문에 여름방학은 다른 대학보다 보름 일찍 시작한다.

서울과기대가 이런 변화를 시도한 건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더 길고, 효율적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다. 여름방학 동안 진로를 탐색하거나 자기개발을 하려는 학생을 위해 서울과기대는 '디스커버리 학기'를 운영하고 있다. 코딩·인공지능(AI)·창업 등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실무 강의를 개설해 8주간 가르치고, 방학 전후로도 온라인 특강·실습·공모전 등과 연계해 학습 활동을 지원한다. 참여한 한 수강생은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고 싶었는데, 웹페이지 제작과 프로그래밍 기초 수업을 들으며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어 매우 만족했다"고 했다.

경북대, 특강·공모전 참여하면 '마일리지' 장학금

학생들이 본인의 적성을 탐색하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학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빅블러(Big Blur·산업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현상) 시대를 이끌 융·복합 전문 인재를 키워 달라는 주문도 나온다. 정부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이런 요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많은 국립대가 학생의 진로·전공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대구 경북대는 학생·학과 중심으로 맞춤형 진로 설계를 하는 'KNU 교육브랜드 선도학과 사업'을 한다. 과거처럼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학생이 먼저 필요한 프로그램을 요청해서 학과 단위로 마련하는 것

이다. 또 학생들이 진로 특강·공모전 등 비교과 활동에 참여하면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마일리지 많이 쌓이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전공 탐색을 장려한다. 18학년 고인준씨는 "취업이라는 막연한 목표만 있었을 뿐이었는데, 학교를 통해 여러 활동에 참여하다 보니 진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다"고 했다.

경북 국립안동대는 3~4학년 중심으로 1박 2일의 '취업 캠프'를 열고 있다. 채용 박람회 참가 기업을 사전에 분석해 학생 적성에 맞는 기업을 미리 탐색할 수 있게 하고, 자기소개서·면접 등을 전문가들이 직접 지도해준다.

한체대, 스포츠+영상분석 융합 전문가 키워

학문의 경계를 허무는 융·복합을 통해 인재를 키우는 국립대도 늘고 있다. 한국체육대학교는 체육과 스포츠과학, 영상분석을 융합한 전문가를 키우는 데 집중한다. 최근 비디오 판독부터 선수 역량 강화까지 영상을 통한 동작 분석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한체대 관계자는 "교내 영상 스튜디오를 활용해 전문 강사진을 초빙, 스포츠과학과 영상기술을 융합한 실습 위주의 강의가 이뤄져 학생들의 호평을 받았다"고 했다.

전북대는 2020년부터 모집정원 없이 복수·부전공으로 이수 가능한 '융합학부'를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AI 등 실무 역량을 갖춘 융합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다. 이공계열은 물론, 인문계열 학생들도 모두 이수할 수 있다. 특히 AI 관련 기초 지식이 부족할 수 있는 인문계열 학생을 위해 이공계 학생들과 분반을 하는 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772명의 학생이 융합전공에 참여하고 있다.

국립강릉원주대, 학생관리 3단계 맞춤형 매뉴얼 만들어

학교·전공 적응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로 케어'에 나선 국립대도 주목받고 있다. 강원 국립강릉원주대는 학생 관리 대상을 '예방·위기·고위험'으로 나눠 단계별 맞춤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매 학기 평균 평점이 낮은 '예방' 단계 학생이라면 학습 진단검사를 통해 결과에 따라 상담을 제공한다. 강릉원주대 관계자는 "학생 맞춤 케어를 통해 중도포기를, 재학생 충원을 지표가 개선됐다"고 했다.

광주교대는 미래 교육환경에 맞는 수업 모델을 예비교사, 현직 교원 등이 함께 발굴하고, 초등학

생들에게 실제로 가르쳐보는 활동을 한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3학년 김모씨는 "내가 기억하는 교사 중심의 초등학교 풍경과 많이 달라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며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는 수업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기틀을 다질 수 있었다"고 했다.

전문가 부르고 해외취업 보내고...국립대도 '특기' 키운다



한밭대, 스마트팩토리 분야 해외 대학 협업

한밭대는 지난해 '스마트팩토리 글로벌 캡스톤' 사업으로 해외 대학 2곳과 공동 사업을 진행했다. 이 대학 산업경영공학과 학생 17명을 선발해 연구팀을 꾸린 뒤 싱가포르 난양공대, 중국 해양대 학생과 물류센터 최적 동선, 생산 공정 시뮬레이션 등 8개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캡스톤(Capstone)은 공학 계열 학생이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에서 겪을 법한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설계를 뜻한다.

한밭대는 지난해 상반기 1팀, 하반기 6팀으로 나눠 캡스톤문제해결 과제를 수행했다. 이 연구 결과를 난양공대와 중국 해양대를 방문해 영어로 직접 발표했다. 난양공대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 3D프린팅 센터와 정부출연 연구소도 방문했다. 김태구 교수(산업경영공학과)는 "물류센터 로봇 연구에서 한밭대 학생은 최적 경로 알고리즘 측면에서 문제에 접근했다면, 난양공대는 기계를 어떻게 구현할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며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합쳐 새 결과물을 도출하는 게 글로벌 캡스톤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지역 성장산업 연구팀 최대 2000만원

교육부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참여한 전국 37개 국립대가 저마다 자율적 혁신 전략을 펴고 있다. 특화 분야 발굴과 국내외 대학과 교내 구성원 간 융합 연계가 핵심이다. 한밭대처럼 교내 연구시설을 활용한 글로벌 협업 외에 지역 산업 생태계를 반영한 연구, 권역별 공동교육혁신센터 운영이 눈에 띈다. 교수와 학생이 머리를 맞대고 교과목 개발에 앞장서는 대학도 있다.

전북대는 지역 성장산업을 도울 연구 인력 양성과

기초·보호 학문 육성에 힘쓰고 있다. 전북 주력 산업 분야인 미래수송·스마트농생명·첨단융합 산업 등에 기여할 연구팀을 돕는다. 인문사회·예체능·기초과학·자연 분야 등 기초 학문 연구도 지원한다. 연초 사업공모를 통해 팀당 500만~2000만원까지 연구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13개 팀, 106명을 지원해 SCI(E)급 이상 논문 90여 편을 냈다.

춘천교대 "학생 550명 참여해 교과목 개선"

춘북대는 학부생이 전임교원 연구실에 소속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 기획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3~4학년 학생이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해서 교수·대학원생과 함께 학술대회나 공모전에 참가한다. 춘북대 관계자는 "우수 학부생의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며 "2022년 학부생 연구 기획 프로그램에 참여한 졸업생 68%가 관련 대학원에 진학했다"고 말했다.

춘천교대는 학생 의견을 반영한 교과목 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나 문화예술회관·스마트 등 현장을 찾아 수업하고, 전문가를 섭외해 특강도 한다. 다른 과 교수끼리 협업해 융합 교과목을 개발하고, 학부생과 교수가 회의를 열어 강의 개선에 나선다.

춘천교대 교육혁신원 관계자는 "서양음악과와 미술과 교수가 논의해 역사 관점에서 본 예술사 과목을 편성했다"며 "학생이 교과목 개선을 건의하는 프로그램엔 550여 명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유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 생활 지원 서비스(경상대), 충청·제주 지역 대학과 연합한 해외취업 지원(공주대), 미국 애리조나주립대와 공동교육과정 개발(서울교대) 등 글로벌 교육 경쟁력 강화를 꾀하는 학교도 있다.

대학 통합 가속화, 공동교육혁신센터도 확대

대학 간 통합은 올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미 통합을 마친 경상국립대(경상대-경남과학기술대), 한경국립대(한경대-한국복지대) 외에 지난해 정부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선정된 '강원대-강릉원주대', '부산대-부산교대', '충북대-한국교통대', '안동대-경북도립대' 등이 통합을 추진한다.

여러 대학을 묶어 학점교류와 공동교과목 운영 등을 하는 권역별 공동교육혁신센터는 낮은 수준의 통합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방송통신대는 올해

수도권 국립대 6개가 참여한 공동교육혁신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이 대학 기획평가과 권순영 주무관은

"공동 연구 교과목을 개발하고, 학점 교류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며 "진로가 비슷한 방송통신대 식품영양학과, 서울과학기술대 식품공학과 학생에게 취업 정보 관련 영상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섬마을 살리기·게릴라 공연...요즘 국립대 이런 일 합니다



경상국립대, 섬마을 살리기 나서

경남 통영시 곤리도에 있는 산양초 곤리분교 재학생은 5학년 이지미(11)양 한 명뿐이다. 올해까지 4년간 신입생이 없다. 폐교 위기에 놓인 곤리분교를 되살리기 위해 경상국립대 통영캠퍼스 재학생 30명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0일~12일 대학 캠퍼스와 곤리도를 오가며 아이디어를 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중 하나인 대학-지역 동반 성장 기획 프로젝트다. 이 가운데 경상국립대는 섬마을 살리기 프로젝트를 한다.

경상국립대 학생들은 곤리도를 대상으로 수산업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했다. 굴 주산지이자 어자원이 풍부한 통영 특성을 살렸다. 곤리초와 다른 학교 학생이 함께 여름방학 때 ▶ 굴에 대해 배우기 ▶ 곤리도 어자원을 활용한 쿠킹 클래스(요리 교실) ▶ 지역 어민 조업 체험하기 ▶ 곤리도 신문 만들기 등이다.

전국 37개 국립대 "지역 혁신·상생 거점"

경상국립대 학생들은 지난해 한산도 대고포마을도 찾았다. '할매꽃 피는 마을'로 불리는 대고포마을은 65세 이상 주민이 80%가 넘는다. 학생들은 이 마을 할매님들이 가꾼 정원에 꽃밭 이름이 적힌 문패를 만들었다. 또 커피를 마신 뒤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마을에서 기른 꽃 모종을 심어 가지고 갈 수 있는 리사이클링(재활용) 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였다.

전국 37개 국립대가 지역 혁신과 상생 거점이 되고 있다. 대학의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다.

목포대 '꿀잼 캠퍼스', 금오공대 '스마트 공학교실'

목포대는 학기 내내 공연을 여는 '여가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꿀잼(jam) 캠퍼스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차주환 목포대 기획처장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과 대학 간 협력 필요성이 절실한 시기"라며 "전문가와 재학생이 함께 꾸미는 공연, 재학생이 기획하는 공연, 예고 없이 펼쳐는 게릴라 공연 등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했다.

창의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 적성·진로를 찾아 주는 국립대도 있다. 경북 구미에 있는 금오공과대(KIT)가 대표적이다. 이 대학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등 재학생은 지난해 9~12월 김천여중·진평중 등을 찾아 전공 소개와 함께 태양광 비행기, 초음속 전구 가슴기 등을 만드는 'KIT 스마트 공학교실'을 진행해 호평을 받았다.

목포해양대, 창원대·제주대와 '해양·수산' 협업

공주대는 지난해 '지역 사회 장애인을 위한 교육·심리 재활과 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공주대 관계자는 "장애 학생은 사회 적응 기술을 배우고, 그 가족은 자녀 장애와 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특수교육과 재학생은 장애 학생 교육과 보호자 상담을 통해 예비 특수교사로서 경험을 쌓았다"고 했다.

대학 간 교류도 활발하다. 목포해양대는 같은 해양·수산 계열 국립대인 창원대·제주대와 의기투합해 'Living LAB(생활 실험실) 협의체'를 만들었다. 지역 현안과 해양·수산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3개 대학 재학생은 지난해 각각 팀을 구성해 해양 문화·관광 분야 활성화 등에 대한 아이디어 경진 대회를 열었다.

전남대 '시니어 모델'·한국해양대 '해양 인재 양성'

전남대가 진도군과 협업한 '시니어 모델 프로그램'은 농어촌 지역 청년·노년층에게 인기를 끌었다. 40~60대 진도 주민 20여명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스트레칭·워킹 등을 배우며 자세를 교정했다. 수료식 겸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전남대 관계자는 "60대 이상 수강생은 수업을 통해 굵은 등과 허리가 펴졌고, 삶에 활력이 생겼다"고 했다.

충북 충주에 있는 한국교통대는 수요자 맞춤형 지역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대학 지역상생협력단이 지자체·학교·단체 등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해 음악회나 특강 등을 기획하는 식이다.

한국해양대는 해양 청소년 인재 양성을 위해 '해양 과학 꿈나무 캠프' '찾아가는 해양 과학 교실' 등을 하고 있다. 한국해양대 교수 등은 지난해 부산 지역 다송중·경남중·중앙중 등을 찾아 해양 과학 기술·문화 관련 이슈를 소개하고 토론 수업을 했다. 특히 해양 생물 홀로그램 만들기, 3D펜으로 바다 생물 만들기 등 체험 중심 '청소년 해양 진로 프로그램'은 지난해에만 100차례 했고, 30개 학교 2178명이 참여했다.

부경대,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도와

부경대는 부산경제진흥원 제안으로 지난해 8월부터 부산 11개 지역 소상공인에게 전자 상거래 등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걸 돕고 있다. 'ICT 프로젝트' '콘텐츠 마케팅' 등 이 대학 정규 과목 수강생이 주기적으로 소상공인을 만나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터넷 검색 광고와 라이브 커머스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라이브 커머스는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고객과 소통하며 물건을 파는 것을 말한다.

"라이브 커머스 시작 후 커피 구독 상품 월 매출이 10배 이상 늘었다" 등 입소문이 나면서 부산 시 소상공인연합회 등 협업 요청도 늘었다. 김정환 부경대 휴먼ICT융합전공 교수는 "AI(인공지능)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기술 환경에서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디지털 전환은 소상공인에게 기회이자 과제"라며 "학생도 마케팅 이론 실무 모두를 배울 수 있다"고 했다.

5회차

평생교육부터 창업까지...국립대, 지방 '혁신 엔진' 맡는다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의 한국교원대 강의실에는 초·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30여 명이 각자 모니터 앞에 앉아 열심히 시와 '채팅'을 하고 있었다. '내 자녀를 위한 생생한 시 이해 및 지도하기' 강의를 수강 중인 학생들로 챗GPT로부터 좋은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 끝없이 질문을 던지는 중이었다.

한국교원대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연 이 프로그램은 자격증 과정이 아닌데도 개설하자마자 5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한 수강생은 "교원대에서 듣는 수업 시간은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며 "교육 시간이 2시간이었는데, 짧아서 아쉬웠다"고 말했다.

국립공주대 '전세사기 예방 교육'... "주민이 필요한 교육 마련"

대학이 지역 발전과 혁신의 '엔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대학당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벌대학30,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대학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 평생교육 ▶ 지역인재 육성 ▶ 산학협력 창업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뛰어드는 국립대들도 있다.

국립공주대는 지난해 11월 지역 내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전세사기 예방교육' 강의를 개설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실제 거래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위험 매물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해 참여 학생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심희철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거 약자로 언급되는 청년, 고령층 등에 대해 각각 세부 사례를 학습해 교육 완성도를 높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부동산 현안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 유·초·중등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국립대학도 많았다. 국립순천대 환경교육과는 순천교육지원청, 순천만생태교육원, 순천제일고 등과 함께 '기후 변화와 순천만'이라는 지역 특화 과목을 순천 지역 고교의 정규 과목으로 개발했다. 지난해 2학기에 순천고, 순천여고 등 지역 6개 고교에서 16명이 해당 과목을 수강하며 순천만 현장 탐방, 팀 프로젝트 등을 수행했다. 황태식 순천제일고 교장은 "지역 특화 과목 운영은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 이수 및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을 알고 지역을 지키는 인재를 양성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청주·전주교대, 지역 아이들 교육기회 확대 나서

청주교대는 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소외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체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시·과학자, 드론전문가, 작곡가, 가수 등을 초청해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정서적으로 예민한 초등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진로 등을 상담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매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말이 기다려졌다"며 "나의 장래희망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던 것이 즐겁고 좋았다"고 했다.

전주교대는 지역 내 다른 대학 및 초·중학교와 연

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주도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1월 전주교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유·초·중등 교육 연계 방안'을 주제로 호남권의 호원대, 전북미래교육원, 칠보초등학교, 은빛중학교 뿐 아니라 강릉원주대까지도 함께 세미나를 열고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박병준 전주교대 총장은 "앞으로도 전주교대가 변화하는 교육 현장에 발맞춰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공유될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강원대, 군인 대상 창업 교육 "전역 후 강원도 정착 유도"

지역 특성을 100% 살려 사업화에 나선 국립대도 돋보인다. 강원대는 육군본부, 2군단의 상호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강원도 및 접경지역 군 장병을 대상으로 기술 창업 교육을 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군 창업 특강에는 105명의 장병의 참여했다. 강원대 관계자는 "전략산업과 연계된 창업교육 실시로 전역 후 도내 창업 취업을 통한 정착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국립대 책무성 더 강화해야... 인재양성기관으로의 혁신 기대"

정부는 올해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원 규모를 확대하면서 국립대의 '책무성'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및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교육부 인재정책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며 "학령인구 급감 및 지역소멸 등 위기 속에서 지역사회 기여, 기초 보호학은 육성 등 다양한 추진 과제를 통해 국립대의 교육 연구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과 대학의 공동 성장 도대를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립대는 캠퍼스 특성화, 일반대와 교육대의 통합, 국립대와 공립대 통합 등 혁신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다양한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며 "다른 대학과 지역의 혁신을 선도하는 국립대학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구 정책관은 국립대의 지역 인재 양성 역할을 강조하며 "학생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해 융합형 인재를 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원 규모를 확대하며 국립대의 교육혁신을 위해 학생의 전공자유선택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학생들은 재학 중 다양한 경험을 통해 기초 소양과 핵심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으며, 대학은 미래가 요구하는 역량을 길러주는 인재양성기관으로 혁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3년도 중앙일보 온라인 기사

보도기간 2023. 4. 17. ~ 5. 3.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강릉원주대, '사다리프로젝트'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국립강릉원주대학교는 2018~2022년까지 1주기 국립대학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생협력 실천, 공공교육 가치 구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지역 국립대학'이라는 사업 목표 아래 지역사회 기여와 공공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먼저는 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의 강점을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자 추진한 대학 협력 네트워크 사업으로, '지역상생발전협의회' 제도를 확립하고 '지역상생포럼', '지역친화 우수학과 인증제' 등 우리대학의 독자적인 성과확산 모델을 개발 운영했다. 또 '지역참여예산제도'를 전국 대학 최초로 도입하고 매년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대학의 자원을 직접 투입해지역발전에도 실질적 기여활동을 해왔다...

경북대학교



경북대, 지역사회 공헌 위한 '달구벌 구라이프 협의체' 결성

경북대학교는 국가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의 인적 전문성과 물적 인프라를 다양하게 활용해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협력 강화를 통해 대학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운영하고 있다.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은 점차 진화하고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영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경북대학교는 지역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광주교육대학교



광주교대, 초·중등 대상 교육멘토링 실시

광주교육대학교는 지난 15일부터 예비교사와 전남 초·중등학교 학생이 함께하는 '예비교사와 함께하는 품격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전남지역 초·중등학교 학생의 기초학력 지도 및 진로상담, 학습코칭, 정서행동 상담·지원 등 학생의 학습 및 정서 영역의 요구를 충족하고, 예비교사의 현장교육 역량 강화 등을 위해 2019년 동계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2회 실시하고 있는 지역 교육청, 지역 교육현장, 지역 대학의 삼자 간 연계·협력 교육 프로그램이다. 광주교육대학교는 전라남도 교육 소외지역 학생들의 학습 공백에 따른 교육 격차 및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중·고교를 양성하는 광주교대와 전남지역교육지원청(화순순군·담양군·보성군·장성군)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교류해 전남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국립공주대학교



공주대, 지역민·재학생 대상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주대학교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주기 국립대학 육성사업 일환으로 지역민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창업 지원 실습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최근 식문화는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 '미래 식품산업'에서는 기존 효율성이 강조되었던 산업경제의 틀에서 벗어나 인간 행복 중심 생활경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생활혁명'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히고 있는 추세이다. 공주대는 공주-예산 캠퍼스의 상품개발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민과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 및 상호 보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수요자 맞춤형 창업 전문가 교육과정'을 제공하였다...

보도기간 2023. 4. 17. ~ 5. 3.

국립안동대학교



안동대,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지역사회 기여

국립안동대학교는 2018~2022년까지 1주기 국립대학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등교육 공공성 확대를 통한 청년 역량강화와 지역협생 순환모델 구축'이라는 사업목표 아래 국립대학으로서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난 5년간 안동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중점 추진과제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지역민 대상 대학자원 공유 및 창업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기여'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경북북부권은 성장축진지역으로 산업·교육·문화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안동대학교는 이러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민에게 창업지원, 평생교육, 문화행사 등 대학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전남대학교



전남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지킴이 자리매김

전남대학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력해 지역사회의 미래 인재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주도적으로 건강한 인성 및 정신건강 함양을 위한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을 2019~2022년 계속사업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활용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시작한 2020년에 사업성과를 냈다.
전남대학교는 팬데믹 상황에서 정서행동문제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또래상담자 양성교육 '초등용 마음튼튼'과 '중등용 마음톡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2019년 전남대학교와 광주·전남교육청 산하 교사, 지역 내 상담기관 상담자프로그램 '학습자 주도형 정신건강증진교육연구회'에서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아동·청소년을 돕기 위해 매년 학교급별 인성교육자료를 개발하였으며...

전북대학교



전북대,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교육자원 공유

전북대학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립대학육성사업 1주기를 추진하며 지역 교육 및 혁신성장의 핵심기관으로서 '미래 인재 육성과 연구 경쟁력 강화,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이라는 사업목표 아래 거점국립대학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주기 사업 기간 동안 전북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의 대표 추진 사례로는 △전북 실리콘밸리 실무교육 프로그램 △아시아특수언어캠프 △장애 인식개선 및 맞춤형 학습환경 제공으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주대학교



제주대, 지역사회 상생발전 허브로 자리매김

제주대학교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1주기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주인이 직접 참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령화된 재래시장 상인들을 방문해 건강을 체크하며, 무형문화재인 해녀, 제주 정체성인 4.3, 해양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학생 아이디어 발굴 및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을 통해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역사문화와 전통의 보존과 계승,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사업들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호응하며, 상생 발전하는 중심 허브로서 자리매김했다...

보도기간 2023. 4. 17. ~ 5. 3.

청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 제6회 청주교사교육포럼

청주교육대학교는 지난 1월 10일부터 14일일까지 4일간 청주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에서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교사전문성 신장'을 주제로 제6회 청주교사교육포럼(CITEF2022)을 개최했다.
청주교사교육포럼은 청주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이 2008년부터 축적해온 수업과 학교 혁신에 관한 실천적인 연구 성과들을 기반으로 전국의 교사단체와 상호협력적 플랫폼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지향하는 학술포럼이다...

충남대학교



충남대, 'CNU 시크릿버스'로 지역사회 공헌활동

충남대학교 사회공헌센터는 지난해 이색 사회공헌 활동인 'CNU 시크릿버스'를 5회 운영해 186명의 학생, 교직원들이 지역사회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며 힘을 보탰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11회를 운영한 'CNU 시크릿버스'는 사회공헌센터가 기획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알리지 않고, 활동 당일 목적지로 이동해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봉사 활동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봉사활동을 매개체로 소통하며 학내 구성원이 하나가 되어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방송통신대, 지역 평생교육기관으로 '우뚝'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교육부 재정사업인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사업을 추진해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방송대는 전국적으로 13개 지역대학과 31개 시·군학습관을 보유한 국내 유일 국립고등평생 교육기관으로, 전국적인 시설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지역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재학생뿐 아니라 동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색 및 지역민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지역주민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 공모사업 참여와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방송 콘텐츠

PART

4

- 1 EBS 특집 다큐멘터리 <국립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 2 EBS 특집 다큐멘터리 <국립대학>
- 3 EBS 국립대학 캠페인 <일터스텔라>
- 4 웹예능 시리즈 <컴플렉서>
- 5 JTBC 차이나는 클라스 국립대학편 <대학을 바꾸면 나라가 바뀐다!>

EBS 특집 다큐멘터리 <국립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부활하는 국립대학

국립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혹시 국립대학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때로는 지역의 경제성장 동력으로, 때로는 지역맞춤 인재양성소로,
그리고 때로는 지역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해결사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한 국립대학의 새로운 도전은 이미 시작
됐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국립대학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아요.

글로벌 시대의 주역, 국립대학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글로벌 시대!
국립대학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각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의 문화, 그리고 지역의
색깔까지! 지역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국립대학의 도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EBS 특집 다큐멘터리 <국립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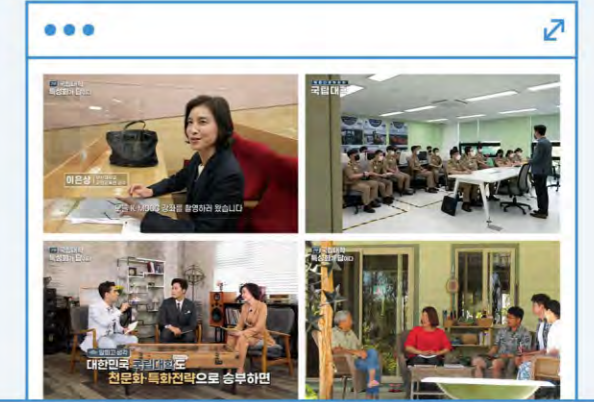


국립대학, 지역과 상생하다

수도권 쏠림현상, 학령인구 감소, 경제위기까지 겹치면서 '대학이
위기다'라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국립대학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가고 있는지 국립대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국립대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국 37개
국립대학은 지역 내에서 교육과 연구 뿐 아니라 공공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지역혁신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하기 위한 국립대학의 노력!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립대학, 특성화가 답이다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과 지역맞춤 인재양성소로 역할을 다해온
국립대학! 국립대학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어디일까요?
서로 교류하여 경쟁력을 높이기도 하고, 각 대학의 고유한 경쟁력을
찾기 위하여 특성화된 분야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교육혁신으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국립대학, 변화의
현장을 찾아가보았습니다.



PART. 4

국립대학 육성사업 방송 콘텐츠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Broadcast Content



EBS 국립대학 캠페인 <일터스텔라>



웹예능 시리즈 <컴플렉스>



EP.1 유리멘탈 콤플렉스

유리멘탈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연자를 위해 국립대학이 나섰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대학생 솔리언 또래상담자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산교육대학교 김신희 학생이 솔루션을 제시해주었다고 하는데... 유리
멘탈 콤플렉서를 위한 솔루션 공개! 콤플렉서는 강철멘탈이 될 수 있을까?



EP.2 노안 콤플렉스

노안 콤플렉스가 있는 사연자를 위해 노안의 원인을 찾아 나섰다.
공주대학교 스마트헬스케어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콤플렉스를 해결
해라!
반전에 반전! 과연 노안 콤플렉서의 검사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지?



EP.3 몸치 콤플렉스

K-댄스 열풍을 이어받아 K-대학이 나섰다.
흥의 민족, 대한민국에서 몸치가 얼마나 서러운데!
흥은 많지만 몸은 따라주지 않던 전국의 뚱뚱이들에게 희망을 준 감동 서사(?)
국립대학을 화려하고 Hip하게 보여준 <컴플렉스>의 마지막 이야기!





대학을 바꾸면 나라가 바뀐다!

과거 '대학 캠퍼스'하면 떠올렸던 낭만적인 기대와는 달리, 지금의 대학생들은 주로 취업 준비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의 의미는 사회로 나가기 전 마지막 관문만이 되었는데, 대학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장일뿐일까요?

역사적으로 대학은 11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대학은 1088년에 설립된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입니다. 볼로냐 대학은 선생님과 학생들의 학문 공동체를 의미하는 'University'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곳입니다.

이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프랑스의 파리 대학 등 중세 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중세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석학들을 찾아가 지식을 얻고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 문화와 자율성은 중세 대학의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1800년대 초, 독일의 베를린 대학이 설립되면서 대학은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연구하는 역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베를린 대학은 연구 중심의 대학 모델을 제시하였고, 이는 현대 대학의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학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준비의 장을 넘어서, 다양한 학문적, 사회적 경험을 쌓고 토론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는데, 처음 볼로냐대학으로부터 시작된 대학은 지식을 전수하고 만드는 '지식 공장의 역할'이었다면 그 지식을 기업에 연계하고 창업으로 이어지는 '기업가적 대학', 대학이 지역사회에 직접 참여해야 하고 서로 얽혀서 하나가 되자는 '참여적 대학'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인서울”, 청년 인구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

“수도권 집중현상의 문제가 지속되면 20년 뒤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 될 것” 지역은 청년 인구 유출로 지역경제 침체, 도시활력 저하와 같은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지역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전체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청년인구가 수도권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학이 청년 인구 유출의 주범입니다.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주요 원인은 일자리와 교육 문제입니다. 통계청 자료(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2020. 6.)에 따르면, 일자리와 교육 문제로 인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20대, 30대 인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자리, 직업이 수도권 이동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에 있습니다.

“대학이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

지방 대학이 살아야, 지역 내 일자리와 교육 환경이 개선되고 청년들의 지역정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유형	인구
직업	64,000
교육	21,000
주택	12,000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

지역 대학 졸업 → 지역 정착

“시대 변화에 맞춘 지방 대학의 변화가 절실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의 이수율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발표에 따르면 64개국 중 4위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학 교육 경쟁력 순위는 49위로 매우 낮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26위)과 전체 교육 경쟁력(20위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유독 대학교육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OECD 국가 학생 1인당 공교육비와 우리나라를 비교해보았을 때, 대학생 1명에 들어가는 공교육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195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 발전 전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경제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무교육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많은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반대로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에는 소홀히 했습니다.

급변하는 4차 산업 시대에 대학교육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학교육의 질은 저하되었고, 이는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혁신을 위한 국가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가거점국립대	9
국가중심국립대	17
교원양성대	11

대학 부족으로 쉽지 않은 대학 발전

좋은 인재가 있는 곳에 좋은 기업이 따라온다

적극적인 홍보가 국립대학의 인식을 바꾸는 길

나라의 내일을 바꿀 국립대학의 역할을 지켜봐 주

“대학 혁신의 마스터키, 국립대학”

이와 같은 이유와 함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 혁신은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학혁신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이 고등교육 혁신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37개의 국립대학이 있으며, 대표적인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한 사업은 '국립대학 육성사업'입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7가지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 제대로 대응하고 이에 맞는 학과 구조 개선을 통해 인재 양성을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국립대학이 선두해나가고 있습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학생들의 전공·진로선택 기회 확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기존 학과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학과·전공간 유연성을 높인 '전공자유선택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며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영상 콘텐츠 공모전

PART

5

- 1 제1~3회 영상콘텐츠 공모전 대상 수상작
- 2 제4회 영상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소개



**제1회 국립대학 육성사업
영상콘텐츠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
대학 강원대학교 팀명 강대파이브



"국립대학에 다니는 재학생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놓치지 말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국립대학에 오기 전에는 몰랐어요. 저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원으로 진로를 찾게 되었어요."

**제2회 국립대학 육성사업
영상콘텐츠 공모전 (대상) 수상작**

대학 국립공주대학교 팀명 한지운팀

"국립대학은 모든 개성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는 국립대학에 와서 다른 색들과 공존하면서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모든 색이 공존하는 곳, 국립대학

**제3회 국립대학 육성사업
영상콘텐츠 공모전 (대상) 수상작**

대학 국립금오공과대학교 팀명 SNUL

"국립대학을 유쾌하게 알리고 싶었어요. 즐겁고 유쾌하게 봐주시고 우리 지역에서 있어지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WEEKEND UPDATE

PART. 5

국립대학 육성사업 영상콘텐츠 공모전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Video content contest



(대상) 수상작

대학 충남대학교 팀명 스케치
작품명 당신에게 국립대학 육성사업이란?



"우리에게 '국립대학'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누군가에게 꿈이 이루는 조력자, 지역 정착을 돕는 발판, 연결해주는 징검다리가 되어준다."

(최우수상) 수상작

대학 부산대학교 팀명 푸름
작품명 고등학생에게 꿈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생이라면 어떤 대학을 원할까?"
"고등학생들이 꿈꾸고 바라고 있는 것을 이미 국립대학이 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우수상) 수상작

대학 부산대학교 팀명 청춘프레임
작품명 국립대는 A+

"국립대학의 장점은 국립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직접 느낀 국립대학의 가치와 장점에 대해 낱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려상) 수상작

대학 경북대학교 팀명 그림에도 청춘
작품명 청춘, 기회,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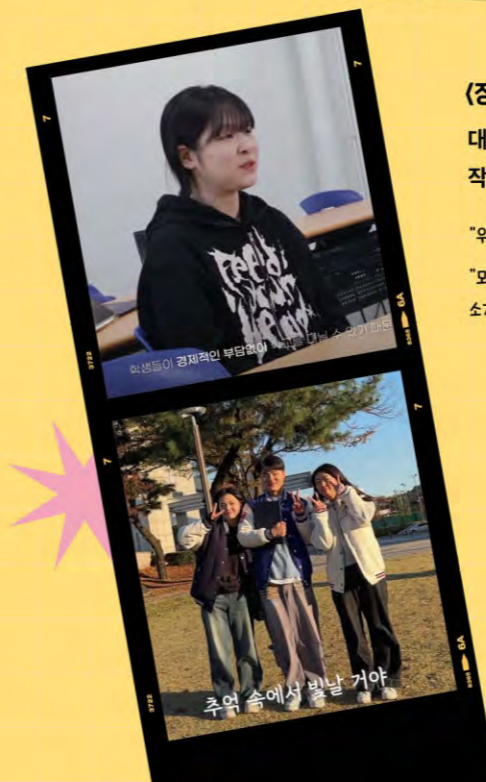
"우리의 20대를 보여줄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청춘들에게 기회와 도전을 선사해 줄 국립대학을 소개합니다."



(애교(愛校)상) 수상작

대학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충북대학교 팀명 국대
작품명 첫사랑

"우리는 빛나는 20대의 첫걸음을 국립대학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립대학과 함께 꿈을 찾아가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성장에 도움을 주며, 묵묵히 곁에서 응원해주는, 우리의 자부심이자 '첫사랑'과 같은 국립대학을 소개합니다."



추억 속에서 빛날 거야

PART



- 1 2020년도 KDD
- 2 2021년도 KDD
- 3 2022년도 KDD
- 4 2023년도 KDD
- 5 2024년도 KDD

1기 홍보대사 2020년 7월 ~ 9월



2기 홍보대사 2020년 10월 ~ 12월



2.5기 홍보대사 2021년 1월 ~ 2월



3기 홍보대사 2021년 3월 ~ 5월



4기 홍보대사 2021년 6월 ~ 8월



5기 홍보대사 2021년 9월 ~ 11월



6기 홍보대사 2021년 12월 ~ 2022년 2월



7기 홍보대사 2022년 3월 ~ 5월



8기 홍보대사 2022년 6월 ~ 8월



9기 홍보대사 2022년 10월 ~ 12월





PART

7

- 1 K대딩
- 2 노잼맨
- 3 차린건 나라지만
- 4 스케치 코미디
- 5 현장취재
- 6 인터뷰
- 7 국립대X국립대
- 8 국립대학 캠퍼스 투어
- 9 추천 영상
- 10 역대 최다 조회수



전남대학교 Ep. 1

1300 도서만 방문

K대딩

다양한 책과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도서관 탐로마루

비오는 날은 더욱 분위기 있어지는 전남대학교 캠퍼스에서 누구보다 영상에 진심인 K대딩 성배를 만났습니다. 우리 성배, 영상 찍을 때 조금 모자라 보여도 착한 애예요. 일상 매순간이 콘텐츠다! 영상으로 시작해서 영상으로 끝나는 김PD의 하루!

"새벽까지 편집하게 힘들지만 결과물이 나왔을때의 뿌듯함 때문에 영상을 끊지는 못할 것 같아요"



충북대학교 Ep. 2

3교시 운동장(축구)

K대딩

(FOLLOW ME) 치구 추대로 (팔로미)

김상엽 (MBTI: GJM EEEE)
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 공: 공시
- 특: 이랜드로 이랜드로 삼정하기
- 특이사항: 대교님 (대외활동에 대한 남자)

이게 평소 텐션 맞아요. 충북대학교에 '대친남'이 있다? 대외활동에 미친(?) K대딩 상엽이의 뽀뽀한 하루를 따라가봤습니다. 대외활동으로 팍 채워져 있는 일상 속 All A+를 받은 비법까지! 스킵 없이 빼놓지 않고 봐야하는 상엽이의 국립대 1,000% 활용법 대공개.

"사실 대학생이 아니었다면 이런 기회를 얻지 못했을텐데, 특히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광주교육대학교 Ep. 3

3교시 운동장(축구)

K대딩

선생님들은 다 잘해야 하는 것 맞죠? 다 잘해야 하는 것 맞는 교대생들의 모습을 빠짐없이 보여드립니다. 다재 다능 육각형인 K대딩 아민이를 만났습니다! 광주교육대학교의 다 잘해야하는 수업부터 놀기까지 잘하는 축제까지! 모두 보여드립니다.

"남은 대학생들, 지금보다 더욱 다양한 활동들로 채워서 후회없이 보내고 싶어요"



충남대학교 Ep. 4

K대딩

귀여운 차차가 있는 충남대학교 캠퍼스에서 따뜻한 농촌 남자 석원이를 만났습니다! 언론정보학과와 영농창업연계전공까지 복수전공을 하고 있는 특별한(?) K대딩 석원이는 어떤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을까요?

"늦게라도 내 삶에 변화를 주고 싶어서 대학에 들어왔어요"



부산대학교 Ep. 5

동아리방

K대딩

여기까지 보여준다고? 공부하기도, 놀기도 좋은 부산대학교 캠퍼스에서 다양하게 대학생활을 채워가고 있는 K대딩 성아의 하루를 보여드립니다. 평범한 듯 특별한 대학생활을 보여드립니다.

"앞으로 국립대학에서 더욱 레벨업하는 대학생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비하인드 Ep. 6

K대딩

"너 국립대학 캠퍼스 몇 개 가봤어?" K대딩들을 만나러 전국 국립대학을 다녀본 K대딩들이 있다! K대딩 콘텐츠의 비하인드를 풀어드려요.

KDD 촬영날에는 비가 온다? 폭우와 함께 신고식을 치른 첫 촬영부터 씨앗호떡 먹다가 기차 놓칠 뻔한 비하인드까지. 썸 K대딩들이 편집하지 않은 날 것 그대로 들려드립니다.

"우리도 K대딩 맞아요(?)"



노잼력 만렙 석준이의 국립대학 방문기. 재미는 없어도 계속 보다 보면 국머든다!
국립대학 캠퍼스에서 꿀잼 포인트를 찾아 소개해드립니다.

Ep. 1



충남대학교



Ep. 2



국립공주대학교



Ep. 3



경북대학교



Ep. 4



국립한밭대학교



Ep. 5



전북대학교



주의! 시청하다보면 기뻐질 수 있음.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들려주는 솔직한 후기!

Ep. 1



충남대학교 쓰담쓰담



Ep. 2



충북대학교 기억해줌 서포터즈



Ep. 3



충북대학교 라이프 솔루션 대학생 기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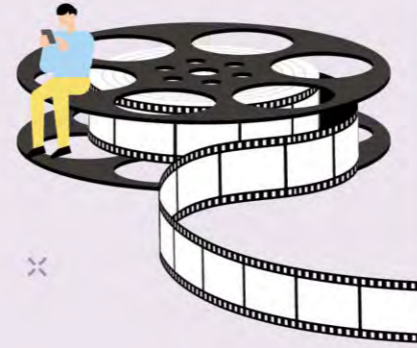
Ep. 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독서문화 프로그램



스케치 코미디




전선배




2년 동안 밥 한번 사주지 않은 선배 태우가 후배 석준이를 우연히 동아리방에서 마주치며 생긴 에피소드



홍보영상 뭐하지



‘아, 진짜 홍보영상 뭐하지?’ 라는 창작의 고통을 나누면서 생긴 홍보대사들 간의 논쟁! 그런데 잠깐만...! 이 영상만 보면 국립대학이 될 하는지 알겠는데?




첫만남




첫만남이 너무 어려운 이유? 홍보대사 선·후배가 만났다. 개성 강한 후배들 덕에 산으로 간 콘텐츠.



교대특



교대에 입학하면 팔목에 명이 든다? 시간표를 보면 내가 교대에 입학한건지 고등학교를 다시 간 건지 헷갈린다. (진짜)교대특 : 모두 국립대학이다



나는 멘토다



페이크다큐 찍어오렸는데 진짜 다크가 되어버린 휴먼 다크 ‘나는 멘토다’ 수선씨의 하루는 아이들로 시작해서 아이들로 끝난다는데...더 보기



현장취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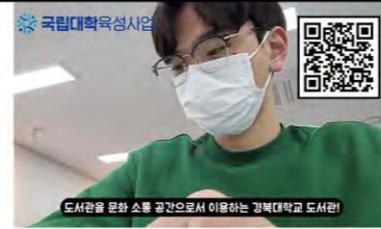
KDD의 가장 큰 장점!
국립대학의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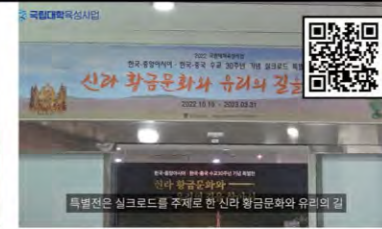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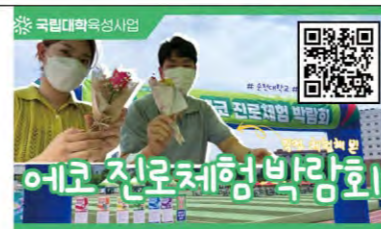
국립공주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국립부산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제주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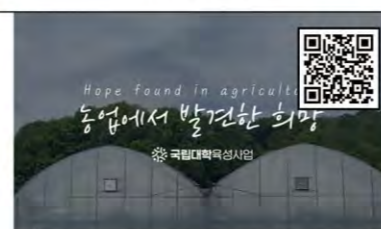
제주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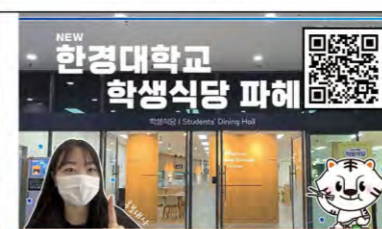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인터뷰

KDD가 만난 국립대학 사람들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참여한 국립대 재학생들부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을 만나보았다.



국립창원대학교
기획처장님



국립창원대학교
메이커아지트 창원팸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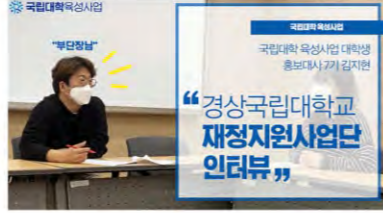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사업담당자



강원대학교
기획처장님



경상국립대학교
사업참여학생



경상국립대학교
재정지원사업단 부단장님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사업담당자



국립한밭대학교
사업참여학생



국립한밭대학교
사업참여학생



경인교육대학교
사업참여학생



국립공주대학교
가구디자인과 교수님



국립공주대학교
사업담당자



국립한밭대학교
사업참여학생



부산대학교
사업참여학생



부산대학교
사업참여학생



국립공주대학교
사업참여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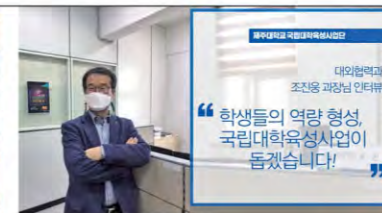
국립공주대학교
언어치료실 담당자



국립군산대학교
기획처장님



전북대학교
연금관리학과 교수님



제주대학교
대외협력과장님



충남대학교
사업참여학생



국립순천대학교
기획처장님



국립순천대학교
사업참여학생



국립창원대학교
기획처장님



충남대학교
사업참여학생



한경국립대학교
기획부처장님



한경국립대학교
입학사정관님



국립대 x 국립대

국립대와 국립대가 만나면?
KDD가 보여준 국립대 간 시너지



경북대학교
x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경북대학교
x
국립금오공과대학교
x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x
국립안동대학교
x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x
한국교원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x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x
한경국립대학교



충북대학교
x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립대학 캠퍼스 투어

대학생활의 로망을 실현시켜줄 캠퍼스,
KDD가 담아본 캠퍼스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강원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추천영상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 담당자가 추천하는 콘텐츠!
이걸 놓칠 순 없지. 떡상(?) 기다립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립대학 육성사업 홍보콘텐츠를 모은 홍보백서 발간을 홍보하는 홍보콘텐츠랄까



KDD가 되고 싶어? KDD는 모집도 남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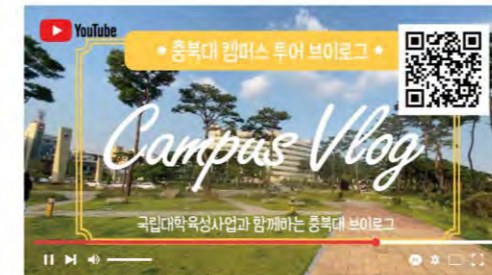


국립대학 별별 학과 다 알려줌



역대 최다 조회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국립대학 콘텐츠는 무엇일까?
국립대학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충북대학교 캠퍼스 투어 (21,995회)



경상국립대학교 캠퍼스 투어 (21,409회)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소개 (15,778회)



한경국립대학교 캠퍼스 투어 (15,429회)



국립공주대학교 캠퍼스 투어 (12,296회)



경상국립대학교 캠퍼스 투어 (11,953회)



PART

8

- 1 사업소개
- 2 모집홍보
- 3 참여후기 & 인터뷰

PART. 8
사업소개
 Program Introduction

아직도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몰라? 네,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학교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는 알자!
 대학별 대표 사업과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립니다.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경북대의 국립대학육성사업이 궁금해?
경북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00 **사업 목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봉사 사업
 대구·경북의 거점대학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연구·혁신을 주도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

01 **지역 사회 기여**
 지역사회 소통·협력 강화를 통한 대학과 지역의 상생 발전

02 **기초·보호·특화 학문분야 육성**
 기초·보호 학문과 연계한 융합연구중심대학으로의 혁신

03 **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소통 공유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가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발전 선도

04 **고등교육 기회 확대**
 국립대학의 선도적 배려를 통한 교육복지 사활 실현

이런 카드뉴스에서는 전반적인 경북대학교의 국립대학육성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각 국립대학육성사업에 대한 더 재밌고 알찬 정보들을 가득한 카드뉴스로 돌아올게요!

국립공주대학교
Kongju National University



국립대학육성사업
**공주대학교
지역사회 장애학생
지원사업**
장애학생 심리지원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 장애학생 지원센터 정비 사업

국립대학육성사업
특수문헌정보관
장애 학생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장애 학생의 성장과 발달, 장애학생 가족지원뿐 아니라 대학과 지역교육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애 학생과 가족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나요?
장애 학생 심리 지원 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특수교육과가 주최하여 하계 심리 지원 임상동작 캠프, 장애 학생 심리지원 릴레이, 학부모 집단상담 프로그램, 장애 가족 힐링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
프로그램의 성과가 궁금해요!
장애 학생의 신체적, 심리적 지원을 통해 장애 학생 고등교육(직업훈련 등)의 기초를 다지고, 프로그램을 운영에 참여한 예비 교사의 자기효능감 및 교사효능감 향상, 상담프로그램을 통한 학부모 회복탄력성 향상 등 뜻깊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립부경대학교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대학생 지역사회문제
DEAP 프로그램!**
지역사회문제의 발견, 공감, 대안, 공론화:
Discover, Empathize, Alternative, Publicize

국립대학육성사업
공공정책연구소 'DEAP 프로그램' 추진배경
부경대 국립대학육성사업 1차년도 사업 결과의 확장
○ 대학생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현안인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함
○ 대학생들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그 문제에 대하여 공감하고, 발견된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에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자 함

국립대학육성사업
지역사회문제 'DEAP 프로그램' 기대효과
D,E,A,P 끊임없이 수정,조정,제구조화되는 과정
○ 지역사회의 문제 발견, 상충간의 공감, 대안 제시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인 발견과 변화에 관련된 영향도 클 것
○ 대학원생과 지역사회의 활발한 교류 및 네트워크를 이루고, 지역의 공익활동을 이끌어내는 데에 기여, 이들을 공론화시킬 것

국립대학육성사업
지역사회문제 'DEAP 프로그램' 소개
참가자 모집
○ 인발인원: 총 5팀
○ 참여대상: 부경대 재학생 중 3인으로 구성된 팀 (팀 인원만 가능, 개별 신청 불가), 유학생 및 졸업생(예외 불가)
○ 활동내용: 대학원생과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지역사회 주민 및 구성원들과 공감하고, 이에 대한 대안 기획, 운영 활동
활동영역
- 지역사회문제의 발견, Discover
- 공감, Empathize
- 대안, Alternative
- 공론화, Publicize
○ 지역사회 범위: 부경대 중심 대학가 및 주변 지역, 부경대 위치 남구 지역을 중심으로 함
○ 활동주제: -인간 -환경 -복지 -안전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문화 -교육/취업

국립부경대학교
Pukyong National University



국립대학육성사업
국립부경대학교 박물관 특별전시
가야인, 바다에 살다
2021.12.06(월) ~ 2022.02.04(금)

국립대학육성사업
부경대학교박물관 특별전
가야인, 바다에 살다 전시소개
부경대학교에서는 국립대학육성사업 '민관학 가야사연구' 추진으로 국립김해박물관 연계 '해양 전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시기간: 2021.12.06 ~ 2022.02.04
전시내용: 근현대 어구류 및 자연유물 다수
전시장소: 부경대학교박물관 (정문관) 제2기획전시실

국립대학육성사업
01 바다, 변화하다
주제: 1. 가야인과 우리의 바다
2. 미소들류로 본 해수변동
내용: 신석기-현대 이르는 해수면 변동을 통해 본 가야인과 우리의 바다

국립대학육성사업
02 바닷길로 연결하다
주제: 가야인과 우리의 배
내용: 가야인과 그들의 '배'를 이용한 대외교류 관련 전시

국립안동대학교
Andong National University



국립안동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 지난 추억과 새로운 꿈을 담은 이야기 -

국립안동대학교
외국인유학생 문화교류
국립안동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 프로그램
2021년 10월
10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방문한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캠퍼스 투어 및 기념품 제작을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에 가세한 요리도 만들고 헤어 스타일링도 진행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인공의 문화에 대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립안동대학교
농촌 봉사활동
ANU 농촌 봉사
2021년 11월
11월에는 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인 유학생들이 농촌에서 일하는 경험을 하고, 지역 농민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외국인유학생 문화교류 (2)
2021년 12월
12월에는 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캠퍼스 투어 및 기념품 제작을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에 가세한 요리도 만들고 헤어 스타일링도 진행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인공의 문화에 대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
National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한국해양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
Marine 4.0시대를 선도하는 SMART KMOU 구축



국립대학 육성사업

한국해양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 비전

KMOU 비전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해양 특성화
종합대학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해양분야 4차 산업혁명(Marine 4.0)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 융합형 해양인으로 인재 양성을 통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해양특성화 종합대학" 달성

국립대학 육성사업
한국해양대학교

사업목표
해양특성화 역량 고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협력 기여 체계 구축

추진 전략

해양특성화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사회 협력 기여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해양분야 네트워크 강화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역량의 지역사회 확산	융합형 교육·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한 해양 안전 전문기 양성

국립대학 육성사업
한국해양대학교

4대 중점 과제

4차 산업혁명 선도 해양특성화 기반 지역사회 기여	글로벌 해양특성화 인재양성을 통한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지역사회 동반성장 견인 협력 네트워크 강화	혁신적 교육 및 연구 플랫폼 구축을 통한 미래 해양인재 공급

국립한국해양대학교
National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2021 한국해양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 우수사례 (1)
**부산지역 교육기관과 함께하는
해양 레포트**



02. 사업 추진

교육
스핀스쿠버 다이빙 자격증(OPEN WATER) 취득을 위한 이론 및 실습 교육
OPEN WATER는 스쿠버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증 코스

운영
18회차 (5월21) 21.7.13-7.17, 28회차 (5월21) 21.10.5-10.9

참여
총 29명 한국해양대학교 13명 + 부산 지역 대학 16명

국내 13명	부산 지역 대학 16명
한국해양대 13	부산대 4, 부산고대 3, 고신대 3, 동명대 2, 동아대 1

01. 사업 배경 및 목적

원류이행
20년 스쿠버다이빙 체험과정의 선문초시에 대한 이행을 위한
자격증 취득과정 개설, 운영

공유 프로그램
우리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 해양레저스포츠 플랫폼 구축 및 홍보

일일캠프
코로나19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해양분야 진로탐색 기회 제공

교류문화 정착
해양레저스포츠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대학 구성원 간 교류의 장 마련

지역사회 기여

대학 자원 공유
스쿠버다이빙 수업 가능 플랫폼 + 아쿠아리움 보유
대학 자원을 재학생에게만 한정하는 것이 아닌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원 개방

공유

이전전문성
이전 전문성 개발을 위한 플랫폼
세종 프로그램에서 운영되어 자격증 강화

환경
평생교육
스쿠버 다이빙 코스 수료 후,
실제 바다로 갈 수 + 바다친화 활동 진행

국립한국해양대학교
National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국립대학육성사업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해양의 미래를 선도하는 플랫폼 대학 KMOU

한국해양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
부산 지역 대학 구성원과 함께하는 해양레저스포츠
프리다이빙 | FreeDiving



Program Goal
부산 지역 대학 간 네트워크 확대 및 상생협력



한국해양대학교는 "부산지역 국립대학 혁신위원회(ALJANET)를 포함하여
4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학과 협력하고 상생합니다.

프리다이빙?

'다이빙 마스크, 핀, 슈트를 착용하고
수중에서 호흡 장비(산소통)를 사용하지 않고 잠수하는 스포츠'



해양레저스포츠 프리다이빙
사업 추진

교육 장소 : 한국해양대학교 레포츠센터
해양인재 수련장과 3차 잠수용, 세미-오픈이 있는
한국해양대학교 레포츠센터에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 대상 : 부산지역 4년제 대학 구성원 중 희망자
(대원 한국해양대, 부산대, 부산고대, 부경대,
사범) 고신대, 동명대, 동서대, 동서대, 동서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과학기술대, 신대, 동신대

교육 내용 : 프리다이빙 이론 및 실습 등
오리엔테이션, 이론강의, 수영장 실습 등 다양한 교육을
총 4기로 17회 20명씩 총 80명에게 교육을 제공합니다.

삼구뉴스
39 News



국립대학육성사업
발견 협의 의회

국립대학육성사업과 함께하는
전국 39개 국립대학의 소식

2020년
삼구뉴스가
국립대학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0년

7월29일 공주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공주대학교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오픈

공주대학교는 '스마트헬스케어센터'를 오픈했습니다.
본 센터를 통해 공주대 학생들과 충남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공유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7월23일 한밭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한밭대학교와 대전 유성구청이 '한밭 걸쳐 스페이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함께 건너 공간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고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과
과거적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지역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8월24일 공주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공주대학교는 '스마트헬스케어센터'를 오픈했습니다.
본 센터를 통해 공주대 학생들과 충남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공유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충천교육대학교 인형극회 '정개구리'는 지난 18일~21일까지
왕성군 간척초등학교에서 '아시아 두리동' 교육공동체와 함께
어는 멘토-멘티 인형극 캠페인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작은 학교 교육 희망의 꿈찾기
프로젝트에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국립대학육성사업

국토대장정

<농어촌 봉사활동>



대학생활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지역사회 발전 기여

목표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구축 및 대학 공공성 강화

세부 사업

- 고등교육 기원 확대
- 대학자원 공유
- 사회적 가치와 대학의 공적 역할 확대
- 지역인 공감 토크
- 대학-지역사회 현안 해결

지역봉사-국토대장정 포함!

2023년은 어땠을까?

국토대장정

광주광역시 여수 캠퍼지 7일 간의 여정!

학생을 비롯해 교직원과 안전요원, 약 60명

코로나 19로 한동안 중지되었으나 다시 개최

약 77KM 거리 도보 횡단하며 농어촌 봉사 병행

목표

- 1) 학생 개인의 한계 극복 경험 생성
- 2) 화목한 전남인으로서의 일체감, 자부심 형성
- 3) 전남대 광주캠퍼스와 여수캠퍼스 교류의 장
- 4) 전남 대표 지역자립국립대학으로서의 자긍심 및 지역 애정 고취

이메일: @ent_jungsam

메교실 및 자교실 환영 지역사회 공헌

한경국립대학교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한경대학교 창업준비농장

창농팜을 소개합니다



여기는 정가창업준비농장 창농팜 현장!


창농의 꿈을 키우고 있는 예비창업농들이 하반기 작물재배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창농팜은 예비 청년농부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활동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 현장실습 중심 구농 프로그램입니다.



실제 농가현장의 토착농 가보

창농팜 프로그램의 차별점은

이론중심단기 과정이 아닌 실습중심장기 프로그램으로

실제 창농에 더욱 도움이 되는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2021 꽃자왈 공유화 릴레이 캠페인

꽃자왈 워킹챌린지

"꽃자왈 해도 제주농업이 기부"

MADE BY @MOBUMJEON



꽃자왈을 걸으며 꽃자왈 정보 미션포스트 OR 포토카드(해피)를 들고 찍은 사진 SNS 업로드를 완료하면 후원채(제주농업)에서 꽃자왈 공유화 기금을 기부(1개사물 당 1만원, 목표금액 120만원) 하는 도농 챌린지

2021년 11월 1일 - 30일

꽃자왈을 걸기만 해도 제주농업이 기부해! 꽃자왈을 걸으며 기부도 하고 경쟁우위도 얻어주세요!

꽃자왈 공유화 재단이란?

제주 꽃자왈을 공유화 발전함으로써, 제주도 친환경 공존체를 건설하기 위해 2007년 4월 10일 설립되었습니다. 꽃자왈 사육지 관리, 교육 연구, 홍보사업 등을 통한 꽃자왈 가치의 공유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꽃자왈 공유화 재단이란? 생명의 숲과 함께하는 후원자님의 영예로운 이름이 될 것입니다!



'꽃자왈 워킹 챌린지' 자세히 알아 볼까요?

꽃자왈 워킹챌린지

"꽃자왈 해도 제주농업이 기부"

2021.11.1~11.30

꽃자왈을 걸기만 해도 제주농업이 기부해! 꽃자왈을 걸으며 기부도 하고 경쟁우위도 얻어주세요!



한경국립대학교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대학 그리고 지역사회

교육·문화교류 활성화 사업



한경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지역사회 포용적 교육협력 네트워크 구축

탈북 학생, 장애 학생과 같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의·인성 교육 멘토 활동과 사업의 지원 그리고 환경개선 활동을 통해서 포용적 교육협력 네트워크 구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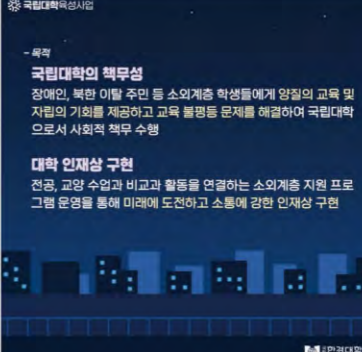


국립대학의 책무성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등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및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여 국립대학으로서 사회적 책무 수행

대학 인재상 구현

전공, 교양 수업과 비교과 활동을 연결하는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미래에 도전하고 소통에 강한 인재상 구현



1. 대학생 창의미소 멘토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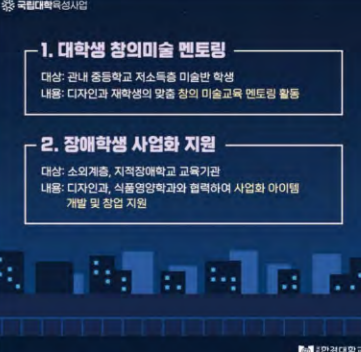
대상: 관내 중등학교 저소득층 미술반 학생

내용: 디자인과 재학생의 맞춤형 창의 미술교육 멘토링 활동

2. 장애학생 사업화 지원

대상: 소외계층, 지역정예학교 교육기관

내용: 디자인과, 식품영양학과와 협력하여 사업화 아이템 개발 및 창업 지원



PART. 8
모집홍보
Program Promotion

우리 학교에서 지금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지금 모집하고 있는 대학별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강원대학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국립대학육성사업 KNU

첨단과학기술과 문화유산의 만남
문화유산 융합 영상디자인 전문가 양성과정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국립대학육성사업 01

프로그램 운영 목적

강원대학교에서는 재학생들의 비교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유산 융합 영상디자인 전문가 양성을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디지털 콘텐츠의 이해
- 진로탐색 기회 제공
- 문화유산의 중요성

디지털 콘텐츠 전반에 대한 이해 | 진로탐색 및 비교과 분야 교육 | 문화유산 디지털화의 중요성 이해

국립대학육성사업 02

운영 프로그램 안내

- 문화유산의 이해
문화유산의 이해 및 디지털의 사례 연구
- 영상 기획 및 촬영
영상 기획 및 제작 이론 촬영 실습
- 드론 운용 및 실습
드론 이론 및 운용 실습 교육
- 디지털 기록과 활용
3D 스캐너, 사진측량 프랜칭 교육

국립대학육성사업 03

교육현장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에 위치한 중앙박물관에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문화유산, 메타버스, 영상 콘텐츠, 3D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이론 강의 및 실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 04

프로그램의 의의

본 프로그램은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중점추진과제를 수행합니다.

- 학생 전공 선택 진로 지원 확대
학생의 수요의 진로를 반영한 학사구조 개편 및 교육과정 개발
- 융·복합 전문 인재양성
지역수요 기반 융·복합 인재양성

경상국립대학교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23년 경상국립대학교 박물관
제3기 박물관 대학



진짜랑 같이 박물관 대학가자

경상국립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교육 명칭 및 개설 목적>
교육 명칭
2023년 제3기 박물관대학 문화교육과정
개설 목적
국가거점국립대학으로서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평생학습생태계 구축 기여
지역 인적자원과 지역민 참여의 영동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해당 분야 전문가, 지역 전문가, 대학교수 등 여러 강사로 구성되어 생성하지만 딱딱하지 않고 넓고 알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교육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경상국립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교육생 자격 및 교육 과목>
교육생 자격
만 18세 이상의 경상남도 도민으로 교육 기간 동안 성실하게 수강이 가능한 자
※ 만 18세 이하 대학생 가능
교육 과목
· 역사문화아카데미(박물관 토지와 가이세계문화유산)
· 문화교양아카데미(시시대의 삶과 건강)
· 지역문화유산탐방(경남문화탐방)
* 모든 교육 과목의 수강료는 무료!
(단, 학내 주저로 본인 부담)

경상국립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교육 과목 돌아보기>
역사문화아카데미
교육기간 2023. 9. 6.(수)-10. 10.(화)
교육장소 경상국립대학교 박물관 1층 대강당
교육과정 박물관 토지와 가이세계문화유산
교육편성 매 3시간 14:00-17:00, 총 6회 : 18시간
유의사항
별도 신청없이 당일 누구나 수강 가능
※ 교육내용 및 상세 일정은 경상국립대학교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경상국립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2021
지역문제 대토론회
너 좀 토론 하니?
부산 청년
대환영

부산광역시

지역 문제에 관해서 토론 한 번쯤 해볼 수 있지 않겠어?
부산 '지역문제' 토론회
친한 알umni이 대립되는 지역문제를 주제로 부산시 청년들이 팀을 구성하여 토너먼트식 토론회

보고

- 대진표에 따른 토너먼트 식 토론 진행
- 친한 및 토론 순서 당일 추첨
- 본선 심사 후 시상식 진행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토론!
참여 자격 및 신청서류

- 부산시 소재 대학 학부 재학생(대학생 가능)
- 부산시 거주 청년(19-34세)으로 구성된 2-5팀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분량제한), 자필서명 반드시!

부산광역시

그래서 어떻게 신청하는거냐면!
접수 방법

- 논제에 대한 전반적인 작성 후 신청서 제출
- 부산대 계약서 : 부산대 학생지원시스템 - 비고란 - 참가신청
- 토론회 계약서 및 일련번호 : 신청서를 이메일 제출 (localinfo@pusan.ac.kr)

부산광역시

국립금오공과대학교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국립대학 육성사업
금오공과대학교-구미시립도서관 연계 문안공모전

금 오 희 망 글 편
2 0 2 3 - 봄 편
문 안 공 모 .

[공모안내] 한번 알아볼까요?

국립대학육성사업

[공모전 개요]

□ 공모명 : 금오희망글편 (2023-봄편) 문안공모

□ 공모기간 : 2022. 12. 13.(화) ~ 2022. 12. 26.(월)

□ 공모대상 : 금오공과대학교 구성원

□ 공모내용 : 한글 자수 25자 내외의 문학작품 발해 문안

상세한 공모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장으로 남겨주세요!

국립대학육성사업

문안 공모의 예시

EXAMPLE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맑은 도전을 임하지 않았을까.

마강한

- 개인 창작물 제외, 티어스기 글자 수 미포함
- 희망과 용기, 꿈과 사랑을 전하는 좋은 글
- 불린 은 형사상의 병행이며, 우체는 용에 한정되지 않음

문안 출제가 있다면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국립대학육성사업

문안 공모 응모 방법

금오공대 구성원: BISKIT(학생역량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신청서 제출

- ☑ 활동 신청 클릭 및 응모신청서 파일 다운
- ☑ 응모 신청서 작성
- ☑ 나의 고내비고과 신청내역 들어가기
- ☑ 금오희망글편 문안 공모의 '과제' 클릭
- ☑ 과제등록창 상단에 작성 문안 제출

더 자세한 내용은
금오공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국립대학육성사업

날짜 확인은 필수지
참가자 모집 및 일정 안내

- 참가자 모집 : 2021.07.19 ~ 2021.08.02
- 1차 서류심사 : 2021.08.03 ~ 2021.08.04
- 서류발표 : 2021.08.05
- 예선(8강) : 2021.08.23 (부산대학교 본관)
- 본선(4강) : 2021.09.13-17일 중 하나 (장소미정)

국립대학육성사업

'지역문제 대토론회'의 진행 논제

참가 논제

1차 서류심사 :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찬반
예산(8강) : 노키즈존 운영(음식점, 카페 등)
본선(4강) : 수출실 CCTV 설치 의무화
결승 : 부산해상관광케이블카 설치

1차 서류심사부터 결승까지 지역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제를 가지고 토론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국립대학육성사업

1등만 알아주는 세상이라고? 효율적인 참여만 해도 혜택이
참여 혜택 및 수상 혜택

- 대상 1팀 부산대학교총장상 및 상금 200만원
- 최우수 1팀 부산대학교총장상 및 상금 100만원
- 우수 2팀 부산대학교총장상 및 상금 각 50만원
- 부산대 학생 : 비고란 미일런지 10명(참가), 수상(20명)

국립대학육성사업

문의사항

부산대학교 전역사업실 지역협력팀
☎ 051-510-7937
국립대학 육성사업
@karanu_38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24.08.08 - 08.09, 08.14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에드바르 뭉크>홀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12학년
09:00 ~ 15:0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술관 & 국립대학육성사업

미술관 가는 날

<미술관 가는 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술관에서는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초청해 **미술관 학습과 탐험**을 위해 <2024년 미술관 가는 날>을 진행합니다.

23년 미술관 가는 날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영국 내셔널갤러리 영회전을 관람하였고, 24년의 미술관 가는 날은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 중인 표현주의 대표 작가 <에드바르 뭉크>전을 선정**하였습니다.

* 전문가와 함께 관람하여, 해설을 듣고 전시 연계프로그램까지 이어지는 과정으로의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국립대학육성사업 프로그램입니다.

<미술관 가는 날>

* 장소 및 전시
: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시 서초구), <에드바르 뭉크>홀

*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부터 고등학교 까지

* 프로그램 내용 및 시간
- 9:00 ~ 9:30 출발(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문 집합/ 동원한 장소 예산)
- 11:00 ~ 12:30 전시관람 비문드 더 스크림 <에드바르 뭉크>
전시연계 프로그램(아트 클래스)
- 12:30 ~ 13:00 점심 (김밥 및 샌드위치 도시락), 휴식
- 13:20 ~ 15:00 도착 예정 (과기대 정문 하차)
* 도착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미술관 가는 날>

* 날짜(백1)
- 8월 8일(목): 26명
- 8월 9일(금): 27명
- 8월 14일(수): 27명
* 최차별 선착순 마감

* 신청서 마감: **7월 22일**
- 신청서 내 개인정보 동의서 및 학부모 동의서 포함
- 신청 링크 QR코드 참고 바랍니다.

* 참가비: 무료(노원구민)
* 문의: museum13@seoultech.ac.kr 온라인 문의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충북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LEVEL-UP 영어캠프'
국대생 8기 방채은

ENG camp!

충북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LEVEL-UP 영어캠프'
프로그램의 목적을 알고있어요!

- 공인어학 성적 향상 및 영어 능력 향상을 통한 글로벌 역량 제고 및 취업 역량 강화
- 단기 집중교육을 통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재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 난이도별 다양한 영어 강좌 등 개인별 레벨에 따른 맞춤형 외국어 수업 제공

프로그램 소개

- 1기, 2기로 나누어서 진행되는 'LEVEL-UP 영어캠프'!
- 충북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 참가인원은 160명으로 제한

- 1기는 온라인 비대면, 2기는 대면으로 수업 진행됩니다.
- 1기는 총 15일 (1월 6시간), 2기는 총 10일 (1월 6시간)
- 난이도별 영어강좌가 운영됩니다.
- 입학제 운영을 통해 개인별 학습 코칭*
- 레벨테스트 및 캠프 기간 중 모의영어시험 응시를 통해 향상도 점검

개설 강좌 및 모집인원

개설과목	개설과목	모집인원
포닉	1기 포닉 기초반(600명대 목표)	60명
	포닉 중급반(700명대 목표)	
	포닉 영급반(800명대 목표)	
포닉스피킹	1기 포닉스피킹 (IM2 목표)	30명
	2기 포닉스피킹 (IM2 목표)	
오제	1기 오제(IM2 목표)	30명
	2기 오제(IM2 목표)	
총계	총 30개 강좌	360명

2022 마계 LEVEL-UP 캠프 기준으로 1기는 비대면 zoom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행하고, 2기는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충남대학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RC 독서모임 모집
2024.05.31(금)~2024.06.30(일)

충남대학교에서 독서모임 'CRC'를 모집합니다!

프로그램 개요 및 참여대상

- 프로그램 개요**
고전문학 독서모임 진행
- 참여대상**
충남대학교 학부 재학생 4~7명으로 구성된 팀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 수업연한 초과자 등 제외)
*팀원 전원 독서모임 주관 기관(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에 1인 1팀
- 운영규모**
총 40팀

신청기간/신청방법

- 신청대상**
팀 리더
- 신청기간**
2024년 05월 31일(금) ~ 2024년 06월 30일(일)
- 발동기간**
2024년 07월 29일(금) ~ 2024년 10월 06일(일)
- 신청방법**
학생경력개발관리시스템 -> 역량개발프로그램(비교과 프로그램)
-> 2024학년도 CRC(Classic Readers Club) 참여 후 신청
학생경력개발관리시스템 : https://withu.cnu.ac.kr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와 함께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및 리더간담회가 운영되며 10주간 기획 이상 고전 학습 모임이 진행하는데요!

팀별 독서 모임 활동을 통한 고전 심화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필수 독서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
이번 기회를 통해 독서를 꾸준히 해보고 싶으신 분!
국립대학 충남대학교에서 다양한 혜택과 결집을 얻고 싶으신 분!

이 모든 분께 이번 프로그램을 추천해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얼른 지원해 보세요~!

프로그램 과정별 반 편성

구분	포닉 기초반	포닉 중급반	포닉 영급반
LEVEL	포닉 입문 ~ 300명	포닉 400명 ~ 600명	포닉 600명 이상
인원	40명(가수명 20명)	40명(가수명 20명)	40명(가수명 20명)
학습목표	영어 기본 문법 및 포닉 400명대 이상 점수 달성	중급 지체없이 600명대 점수 달성	영급 지체없이 800명대 점수 달성
강의구분	1일 6시간	1일 6시간	1일 6시간
총 수업인원	1기: 60시간 / 2기: 60시간	1기: 60시간 / 2기: 60시간	1기: 60시간 / 2기: 60시간

2022 마계 LEVEL-UP 캠프에서는 **포닉/오제/오제 과정 수업 모두 재일 수업이 끝나면 반별 스터디가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여기로 연락주세요!

☎ 043 - 261 - 3332
혹은
국제교류본부(N10동) 254호로 방문해주세요.

국립대학육성사업
국립대학육성사업
국립대학육성사업

하계, 동계 방학 충북대학교
'LEVEL-UP 영어캠프'로 외국어능력을 향상시켜보세요!

충북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LEVEL-UP 영어캠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 홍보대사 8기 방채은

PART. 8
참여후기 & 인터뷰

Program Review & Interview

국립대학 육성사업이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직접 해본 사람이 가장 잘 알겠지! 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어떠셨나요?"



경상국립대학교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국립대학 육성사업
경상국립대학교 재정지원사업단 인터뷰
 국립대학 육성사업 홍보대사 7기 김지연

02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립대학 안의 어떤 공공성 확보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특정 부분의 재원이 지원되고 그에 대한 활동을 수행하길 원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이 국립대학 육성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3 2) 문화 프로그램

남영초식 선생님의 책만으로도 진행되는데요. 우리 학교에선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유물이나 예쁜 공룡이 될 수 있고 또한 가마 문화가 활성화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 지역간에 교류하면서 하는 문화 활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기초 보육학문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국립대학이 지켜야 되는 공공성이 있어요. 그러하여 전반적인 학문의 육성을 좀 신경써야 되거든요? 그 차원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기초 보육학문에 대한 육성사업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남의 특징 중 하나가 남영초식 선생님 부터 해서 특유의 유학문화가 발달하고 있어요.

04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업에 재학생이 참여할 수 있나요?

공지를 많이 합니다! 지역사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홈페이지를 자주 이용해 주세요.

0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운영 지원 사업인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대학혁신사업 두 가지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부서인 재정지원사업단의 부단장 김영철입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대학혁신사업
 재정지원사업

03 2021년도 진행했던 사업을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역사회 상생 이것이 국립대학의 하나의 중요한 공공정책사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가지 사업이 진행했는데 예를 들면 고등 교육 생태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사업, 지역 고교들과 연계되어 있어서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1) 지역사회 기여

그리고 시민과 연계한 사업이라고 해서 요즘 인문학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 있기에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은 그렇게 크지 않기에 인문학과 관련 되어 공급해 하시는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창출하는 그런 재능을 육성사업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03 3) 기초 보육학문

그 남영초식 선생님의 책만으로도 부터 나온 게 기업과 정선이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기업과 정선으로 발생한 기업이 LG, 삼성 위 이런 대기업들이나. 그리고하여 그런 인문학이 그냥 인문학으로 남지 않고 실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것들을 차원에서 기업과 정선으로 연계해서 실제 기업과 정선의 어떤 활동영역, 어떤 기업과 정선의 중심성 그것에 대해서 지식을 같이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지역 네트워크

지역 안에서의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또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거점국립대학이라 전문적으로 학문교류 또는 산학교류를 하려고 지금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5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학교는 경남의 거점국립대학교로써 경남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대학의 고유 책무성 그리고 지식의 활용 또는 전달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해당 사업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재학생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게 된다면 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여러가지 활동도 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들이 향후에 지역의 중요한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테니까 해당 프로그램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인교육대학교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대학-지역사회 협력 문화예술 프로그램
GINUE - ART 전시회

국립대학육성사업

2.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지누살롱>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지역사회의 성인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도스트와 함께 나만의 속도로 전시 관람하는 법'을 알아보고 전시에 대한 감상을 적은 캘리그래피 액자를 제작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완성된 액자 너무 아름답습니다 !!

국립대학육성사업


1. 기획전시 <데이터로 상상해요>



경인교육대학교 지누지움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으로 문화예술 활동이 어려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기획 전시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했습니다!
(재학생들도 전시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

3. 전시 연계 프로그램 <천연비누 만들기>



경인교육대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데이터로 표현한 예드 호킨스의 'Warming Stripes' 작품을 함께 감상하고 천연비누를 직접 제작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만족도가 매우 높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

국립대학육성사업

국립목포대학교
Mokpo National University



국립대학육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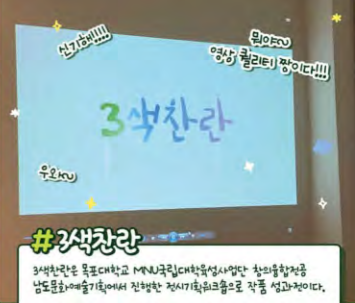
2021 전시 기획 워크숍
3색찬란 관람후기

국립대학육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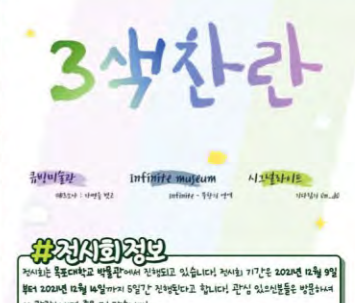
#3색찬란
3색찬란 전시는 큐레이터의 다양한 요소와 분야에 대한 이론을 토대로 전시를 기획하고 모델을 제작한 것입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



#3색찬란
3색찬란은 목포대학교 MNU 국립대학육성사업단 창의융합형 선도문화예술기획에서 진행한 전시 기획 워크숍으로 작품 성과전이다.

국립대학육성사업



#전시회경보
국립대학육성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시 기간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11월 25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분들은 박물관에서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립공주대학교
Kongju National University



백제문화원형복원센터
활용방안 공모전
대상 수상자 인터뷰

국립대학육성사업

Q1 간단한 자기소개와 공모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성준님

공모전 명에 대한 소개를 소개합니다

Instagram.com/sungjun_02hwa
blog.naver.com/jm2jan

저는 대학생 안성준입니다. 현재 연세대학교에 재학하고 있고, 전공은 사학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참여한 공모전은 공주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주관한 백제문화원형복원 공모전으로 지역의 가치를 위한 활용방안 발굴 공모전입니다.

국립공주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백제문화원형복원센터 활용방안 공모전

국립공주대학교 백제문화원형복원센터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역 문화 콘텐츠 기반 미래 교육 거점 센터 구축 및 운영'의 일환으로 백제 문화 원형 복원 센터 활용방안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공모전은 백제문화원형복원센터의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활용방안 발굴 및 진행 프로그램을 제안할 목적으로 공주대 재학생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포함한 전국민이 참여 하여, 많은 아이디어를 내 주었습니다.

Q2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문화재청, 국립공공정책연구소, 사단법인 연구

저는 문화콘텐츠 기획에 진로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 역시 평소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라는 생각이 들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문화재청 등 기관에서 대외활동과 공모전에서 경력을 갖추는데, 이번에는 팀 프로젝트가 아닌 개인 기획으로 도전해보고 싶어 참여했습니다.

국립부경대학교
Pukyong National University



국립대학육성사업 선정
부경대 공공정책연구소
Interview

공공정책연구소 '양기용' 교수님과의 인터뷰!

국립대학육성사업

02

부경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는 어떤 곳인가요?

공공정책연구소는 행정과 사회복지 등 공공부문의 행정의 여러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관련 연구 작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

01

안녕하세요 교수님!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

저는 부경대학교 행정학과에서 행정학 및 사회복지사론 등을 강의하고 있는 양기용입니다. 아울러 행정학과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공공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

03

공공정책연구소가 '국립대학육성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신가요?

국립대학육성사업이 강조하고 있는 대학이 가져야 할 지역책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가져야 할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성)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
지역사회문제 관심/ 대응방안
대학생-지역사회 네트워크

국립대학육성사업

국립안동대학교
Andong National University



청소년 학습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활동 후기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대학육성사업 대학생 멘토사 7기 안동대학교 김재경입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에 응해드려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시작 전,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안동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에 재학 중인 20학년 김재경입니다.

간결한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대학육성사업 대학생 멘토사 7기 안동대학교 김재경입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에 응해드려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시작 전,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안동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에 재학 중인 20학년 김재경입니다.

멘토링 지원 동기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정서 혹은 멘토링 프로그램의 멘토로 지원하신 동기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저는 학생 시절부터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중학부터 고교 친구들과 함께 '학습부들'이란 동아리가 있었고, 한 번씩 친구들과 모르는 부분에 대해 물어 보았으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는데,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며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 멘토링 활동을 하며 만약 멘티에게도 커리큘럼 주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멘토링 활동 소감

네~ 이차시 다음 질문 드려주세요!! 사정서 혹은 프로그램의 멘토로 활동하시면서 보람을 느꼈던 일이나 힘들었던 일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정식적인 멘토링 활동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멘티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 되게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멘토 해 시공간에 함께 수업을 해보니, 멘티 친구가 공부에 대한 호기심이 같으면 느끼는 것 같아 부끄럼을 느꼈던 것 같아요. 또 저한테 물어 보았던 문제를 어떤 문제라도 꼭 풀어주는 모습을 보니 웃음이 절로 나왔던 것 같아요! 언~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농업인의 날과 민속놀이 한마당

11월 10일에는 부산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에서 준비한 농업인의 날과 민속놀이 한마당이 열렸는데 홍보대사 단원님과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세~

11월 10일, 부산대학교 넉넉한 터에서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전통떡 나누기 전통놀이 체험 나만의 전통문양 복주머니 만들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건강한 농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의 사기 진작과 농업 발전을 위해 전통 떡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민속놀이 체험도 할 수 있었는데요! 맑은 가을 날씨에 친구들과 함께 민속놀이 너무 재밌었죠?

국립창원대학교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인권 Mind Up 페스티벌

행복, 존중을 실천하는 참 만남!

인권 Mind Up 페스티벌

지난 11월 19일 창원대학교 정문에서는 인권 Mind up 페스티벌이 개최되었습니다. 학내 구성원 및 지역주민 화합자를 대상으로 한 이 행사는 창원대학교 인권센터와 국립대학육성사업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는데, 세 가지 주제로 "행복과 존중을 실천하는 참 만남"을 이루어주신 인권 Mind up 페스티벌에 대해 알아보까요?

주제

- 01 인권존중 UP**
불법 촬영, 디지털 성범죄, 가로세로 성평등 용어 퀴즈
- 02 인권가치 UP**
노동인권 상담
- 03 인권마을 UP**
트라우마 상담, 그림카드 상담, 인권퀴리미 체험

인권존중 UP

- 01 불법촬영 바로 알기**
불법촬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디지털 성폭력 대처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불법촬영 모형기타 전시 및 체험
- 02 가로세로 성평등용어 퀴즈**
성차별과 여성에 대한 폭력, 성평등 관련 개념을 가로세로 퀴즈로 쉽게 이해
- 03 디지털 성범죄 바로 알기**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시, 실천의숙하기, 디지털 성범죄 정의, 유형 등에 대해 설명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일상에서의 실천방법 찾기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2021 하계방학 동아시아지식학 강좌 소개

온라인 강좌 후기 및 강좌 소개

부산대인문학육성사업

목적: 인문학 교육·연구 역량 강화와 동아시아지식학의 국제적 수준 제고 및 글로벌 인재 양성
필요성: 인문학 진흥을 위한 특화 지원 필요
2021 하계방학 동아시아지식학 학습강좌 개최

동아시아지식학 학문기반 조성

부산대에서는 동아시아지식학 학문 보존 및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동아시아지식학 학문기반 조성 교육시스템 구축

동아시아지식학 차세대 학습포럼 개최

동아시아지식학 국제학술심포지움 개최

글로벌교육콘텐츠 제작과 확산

2021 하계방학 동아시아지식학 강좌

강좌 개최 기간: 2021. 6. 22. ~ 8. 31.
수강자 혜택: '인문학강좌' 명의 수료증 및 '상품 증정'
*2021. 11월 10일 개최되는 '농업인의 날' 행사 10명 이상 참가자 대상 '상품 증정'

<강좌 신청 방법>
부산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홈페이지 >
커뮤니티 > 행사 안내 > 해당 강좌 안내 선택 >
설문지(신청서) 작성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 및링 프로젝트
“심포”

심포란 총학생회에서 공간고사로 지친 학우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기획한 및링 프로젝트입니다.

“심포”

심포란 총학생회에서 공간고사로 지친 학우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기획한 및링 프로젝트입니다.

세부 프로그램

- 동아리 공연
- 전시콘서트
- 나이트 드레스쇼
- 물물 축제
- 마니 게임
- 푸드 트럭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심포'를 만끽할 수 있었던 현장! 함께 보러가세요

프로그램

- 비포노니, 김명
- 비엔인, 동아리, 공연
- 비전시콘서트, 연이벤트, 영상화
- 비물물축제

프로그램

- 비국립부산대학교, 아리글자, 기드
- 비Pusan National University

이번 심포 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도 있었는데, 바로 '부산대학교 항공우주공학부'와 '이대우 교수팀' 동승식입니다! 부산과 제주도를 주제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부산시립대학교, 견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장화과자 찰는 비올을 담았다고 합니다. 부산시립과 후한 가족을 위해 두 달여 동안 열심히 준비해오신 이대우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감사의 전사를 드립니다. ㄹ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전남대학교 X 국립대학 육성사업
사각지대 그 틈을 사랑하다

김호민, 윤재영, 이창훈, 정용림, 조태기, 박찬

전시회 소개

우리가 감각에 자각되지 않는 공간
“사각지대”

작가 김호민, 윤재영, 이창훈, 정용림이 자신만의 독자적인 사각지대를 탐구하여 작품으로 승화시켜 선보이는 4인전 전시.

전시 기간: 2021. 12. 7 ~ 2022. 1. 5 (총 6회)

작가 소개

작가 김호민

- 시대상을 반영한 현대의 '행방'을 소재로 전통적 산수화와 정물
-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시공간을 뛰어넘어 평온하고 재치있는 작품을 제작함

작가 소개

작가 윤재영

- 대표작: 병상지침
- 생성과 소멸, 이동(회고) 이동(희망), 존재와 비존재로 구성된 삶의 실재와 근원적리를 추상적으로 표현함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전남대학교 X 국립대학 육성사업
2021 한책 독서후기 공모전

공모전 소개부터 수상자가 들려오는 입이 떡개까지

공모전 소개

전남대학교가 선정한 훌륭한 한책 7개책에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대한 깊어 있는 사고와 다양한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남대학교 도서관에서 주최한 공모전

공모기간: 2021. 11. 15 ~ 12. 05 (총 6회)

한책도 인생이 될까봐나

공모전 소개

2021 한책 독서후기 공모전

수상자 인터뷰

대학생 부문 우수상 화학공학부 임서연님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화학공학부 재학 중인 20학번 임서연입니다. 저는 전공 공부 외에도 글쓰기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번 공모전에 수상하게 된 것은 정말 영광입니다. 이번 공모전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제가 사서읽은 책이 많아서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제가 사서읽은 책이 많아서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북대학교
Chonbuk National University



전북대학교 AUEA 교환학생 파견 프로그램
AUEA 교환학생 인터뷰

-2022년도 제2학기 파견-

전북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교환학생 인터뷰

Q1. 인터뷰가
Q2. 인터뷰 준비 방법
Q3. 기간 기간은 어느 정도
Q4. 교환학생 생활
Q5. 교환학생 생활
Q6. 교환학생 생활

교환학생 인터뷰2

Q1. 인터뷰가
Q2. 인터뷰 준비 방법
Q3. 기간 기간은 어느 정도
Q4. 교환학생 생활
Q5. 교환학생 생활
Q6. 교환학생 생활

전북대학교 AUEA 교환학생 파견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인 'AUEA 교환학생 파견 프로그램'은 AUEA(아시아대학교육연합회, Asian University Education Association) 회원 학교 교류 및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특별을 사고, 국제적 시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부여합니다.

특별한 사고, 국제적 시야, 다양한 경험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

국립대학 육성사업 홍보 아카이브

홍보백서

Archive: Korea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처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99, 대학본부 317호

전화 042-821-8453, 8458

인쇄처 모듈디자인